

금융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탐색

한국도시연구소 2022 소액연구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정진영 · 홍다솜
함께 한 이들 - 빈연구소

목차

01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대상 및 방법	4
1) 연구 대상	4
2) 연구 방법	6
02 해외 금융커먼즈 사례 분석	9
1. 금융의 대안적 재해석	9
1) 이탈리아 방카 에티카	9
2) 스웨덴 JAK 은행	10
2. 대안적 가치에 대한 투자 및 용자	11
1) 독일 GLS 은행	12
2) 일본 도쿄 미래뱅크	13
3) 미국 노스다코타은행	13
3. 연합·연대체 은행	14
1)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15
2) 캐나다 데자르댕 연대경제금융: 노동조합-협동조합 연대	16
3) 국제가치은행연합 GABV	17
03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 과정과 구조	19
1. 대안금융 생태계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19
1)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19
2) 공간 커먼즈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실험	25
3) 시민/지역운동과 대안적 금융의 필요성	27
2. 대안금융 생태계의 구조	31
1)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구조	31
2)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직 형태와 운영	47
04 대안금융 생태계의 관계 맺기	57
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57
2. 지역과 관계 맺기	65
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68

05 금융 커먼즈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72
1. 대안금융 생태계의 가능성	72
2. 대안금융 생태계의 한계 및 극복 방안	74
참고문헌	79

01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커먼즈(common)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저항하는 움직임을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이다 (볼리어, 2015). 비단 이론가와 실천가뿐만 아니라, 국가 및 도시 정책, 시장과 자본 역시도 커먼즈라는 단어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상품화, 사유화, 그리고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범철, 2020; 실비아 et al., 2020; 안새롬, 2020; 유기현, 2021). 커먼즈 실험의 범위 또한 공유지와 공유주택부터 공동체 수자원 · 에너지 · 폐기물 관리 체계,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다 (Shareable, 2018). 더불어 커먼즈의 조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형성, 그리고 화폐 · 금융 시스템의 커머닝 (commoning)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ollier, 2020; Bollier & Conaty, 2015; Standing, 2019).

한 예로, 커먼즈 전략 그룹 (Commons Strategies Group, CSG)과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öll Foundation)은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화폐와 금융커먼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커먼즈를 위한 민주적 화폐와 자본 (Democratic Money and Capital for the Common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커먼즈를 위한, 그리고 커먼즈로서의 금융에 대한 공통의 어젠다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파편적으로 진행되어온 대안적인 화폐 및 금융 실험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화폐 ·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Bollier & Conaty, 2015).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와 커먼즈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커머너 (commoner)의 금융 실천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국내 금융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적인 금융 실험과 공동체를 탐구하는 데에 있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본 연구는 각 실험에서 나타나는 대안적인 금융 구조 · 관행 · 지식을 살펴보고, 커먼즈를 위한 금융 혹은 커먼즈로서의 금융이 향후에 추구할 수 있는 여러 실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안금융 공동체가 기존의 국내 금융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여타 (대안)금융기관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금융의 커먼즈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발명하는 것을 넘어 여러 층위와 스케일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과정이어야 하므로 (Bollier & Conaty, 2015: 13)', 본 연구는 대안적인 금융 단체가 다양한 층위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및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그 함의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금융지리학의 '금융 생태계(financial ecologies)' 개념을 활용하였다. 금융 생태계는 관계적 접근법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gent-network theory, ANT)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금융 시스템을 다양하고 이질적인 생태계들의 상호구성적인 연합 혹은 관계적 배열로써 바라본다 (French et al., 2008; Lai, 2016; Leyshon et al., 2004). 금융 생태계는 상이한 금융 지식·관행·주체성을 갖는 그룹으로, 각 금융 생태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개 및 발전한다. 금융 시스템은 이 같은 여러 금융 생태계 간의 상호구성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때 금융 생태계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금융 생태계 간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양하다. 더욱이 금융 시스템의 작동은 금융 생태계 간의 연결성과 구조에서의 불균등, 나아가 사회·공간적 불평등을 형성할 수 있다 (Knox-Hayes, J., & Wójcik, D, 2020; Langle and Leyshon, 2017; Lai, 2016; Liu and Lai, 2021).

본 연구는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와 커머너들의 금융실험이 형성하는 금융 생태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커먼즈의 초석이 될 금융 구조·관행·지식·관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커먼즈의 구성에 있어 기존 금융시스템 및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한계점과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와 실험들이 형성하는 관계망을 파악하고, 향후 금융커먼즈 조성을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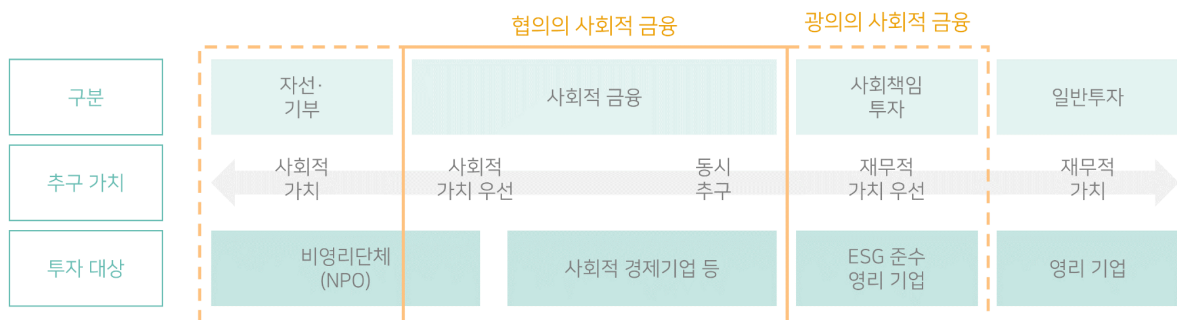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커먼즈 조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커머너들의 금융 실천 (커먼즈를 위한 금융)과 커먼즈적 요소를 갖고 있는 대안적인 금융 실험 및 공동체 (커먼즈로서의 금융)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본 연구는 ‘커먼즈를 위한 금융’의 사례를 통해 커먼즈 형성 과정에서 커머너들이 금융을 활용하는 맥락과 방식을 살펴보았다. 커머너들의 금융 실천은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공간 기반의 지역자산화운동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공동체 공간의 구성과 활용을 토대로 지역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자산화운동은 여러 금융 채널을 조합하여 공동체 공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지역자산화운동을 중심으로 금융이 커먼즈화에 결합하는 방식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안금융 실험과 공동체를 고찰하고, 금융 그 자체의 커먼즈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안적인 금융 실천은 사회책임 투자, ESG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금융과 같은 상대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의 금융부터, 반자본주의적 금융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대안금융 관련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투자 대상 기준으로 대안적인 금융의 실천을 <그림 1>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였다. 대안금융을 시장 친화적인 금융과 공동체 친화적인 금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진수, 2013). 시장 친화적인 금융은 임팩트 투자,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성과채권과 같이 기존 금융체계의 금융 구조 · 관행 · 논리를 유지한 채로 투자 대상의 전환을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 친화적인 금융은 새로운 화폐 · 자본순환의 경로와 금융 구조 · 관행 · 논리를 창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 종교, 청년, 노동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금융 공동체를 형성한다. 공제회, 신용 협동조합, 지역화폐, 지역(개발)금융, 협동금융, 연대 금융, 공동체 토지신탁 등이 공동체 친화적 금융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림 1> 사회적 금융의 분류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이처럼 넓은 대안금융의 스펙트럼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 금융 및 화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금융에 대항하는 지식과 관행을 (재)생산하는 공동체와 실험에 주목하였다.¹ 그리고 금융 구조와 금융 제공 대상을 중심으로 이들을 유형화 하고,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 실천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 ‘커먼즈로서의 금융’을 위한 폭넓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커먼즈를 위한 금융’과 ‘커먼즈로서의 금융’이 결합한 형태의 대안금융 공동체와 실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금융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안적인 금융 실천과 시스템을 모색한다. 공동체은행 빈고는 그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주거공유지인 ‘빈집’과 ‘빈마을’로부터 기원한 빈고는 자본 그 자체를 커머닝하는 대안적인 금융 구조를 창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여러 공동체에게 커먼즈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커먼즈를 위한 금융’과 ‘커먼즈로서의 금융’이 결합한 형태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술한 세 가지 유형의 대안적인 금융 생태계를 탐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대안적인 금융실험과 공동체의 사례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국내 대안금융 실험 및 공동체에 관한 사례 조사에 기초하여, 인터뷰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진들은 인터뷰 대상 선정에 있어 비단 인터뷰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대안 금융공동체를 인터뷰 대상에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12개 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인터뷰 참여 단체와 일정은 <표 1>과 같다.

¹ 물론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금융 구조와 논리가 사회·공간적 순환을 거치며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 Roy (2010)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와 실험 역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안적인 금융’을 표방하는 ESG 금융,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등이 ‘자본주의적인 금융’의 논리, 통치성, 금융화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Knox-Hayes and Wójcik, 2020; Langley, 2020; Rankin, 2013),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분류 등을 참조하여 넓은 대안금융의 스펙트럼에서 연구 관심을 좁혔다. 그 대신 연구 대상이 되는 금융 공동체가 여타 금융 시스템 및 기관과 상호 금융 지식과 관행을 모방·전유하며 ‘자본주의적-대안적’ 금융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포착하여, 대안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을 담고자 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네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 실험이 시작된 맥락과 계기, 그리고 각 금융 공동체의 역사와 현재의 비전을 묻고자 하였다. 둘째로 금융 구조 · 관행 · 논리, 그리고 운영 및 거버넌스의 형태와 규모를 질문하였다. 셋째로는 각 금융 공동체가 여타 대안금융 공동체와 기존 금융 체계 · 제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금융 공동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난관과 고민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통된 주제로 질문의 열개를 잡은 후, 각 금융 공동체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별 세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질문지는 인터뷰 참여 단체에게 사전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표 1 > 연구 대상의 특성 및 인터뷰 일자

대분류	대안금융 공동체	공동체 특성	지향점 및 주요활동	시민운동과의 결합지점	금융 제공 대상	인터뷰 일자
커먼즈를 위한 금융	건맥1897 협동조합	지역자산화운동	공간조성 및 지역활동	도시재생	구성원	2022.07.19 ²
	공유성북 원탁회의	지역문화생태계 및 거버넌스	지역거버넌스 및 공간 형성	지역/문화	구성원	2022.07.25
	사람과 공간	지역자산화운동	공간조성, 지역 및 민중의 집 활동	민중의 집	구성원	2022.08.03
	해빗투게더	지역자산화운동	공간활용	사회적 경제	구성원	2022.08.04
	(사) 연구자의 집	연구자 및 지식 커먼즈운동	연구자 공간지원 및 지식커먼즈 형성	연구자/지식	구성원	집담회 참여
커먼즈를 위한 금융 + 커먼즈로서의 금융	터무니 제작소	청년주택지원금융	청년주거지원	청년	타공동체	2022.08.22
	희년은행	희년함께 무이자은행	청년 주거 및 금융지원	청년/종교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11
	공동체은행 빈고	탈자본 공동체은행	탈자본 지향 및 (주거)공동체 지원	주거/공동체	구성원 / 타공동체	-
커먼즈로서의 금융	한살림연대 기금	한살림생산자지원 금융	한살림 생산자금융지원,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05
	노동공제 연합 풀빵	노동자공제조합	노동자 공제활동	노동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11.

²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웹진 공유도시」 편집진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웹진 공유도시」 2022년 7월호 (제9호)에도 수록되었다.

도토리회	홍동면 무이자은행 및 지역화폐운동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이웃 금융지원	지역	구성원	2022.08.18
다람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및 지역노동자 경제공동체	지역민 등 금융지원	지역/노동/종 교	구성원	2022.08.19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지역화폐 및 지역은행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이웃 금융지원	지역	구성원	2022.08.24
주민협동연 합회	지역자활조합연합 회	지역이웃지원	지역	타공동체	집담회 참여

더불어 연구진들은 2022년 9월 17일 <금융 커먼즈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 의사를 밝힌 인터뷰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대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해당 행사에서 참여 관찰한 내용까지를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후 문헌 연구, 인터뷰, 참여 관찰의 내용을 종합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02 | 해외 금융커먼즈 사례 분석

제2장에서는 해외 금융커먼즈 사례를 통해, 다양한 금융커먼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해외 금융커먼즈는 크게 금융을 대안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커먼즈, 대안적 가치에 투자 및 융자하는 커먼즈, 다양한 공동체의 연합·연대체를 모색하는 커먼즈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각의 금융 커먼즈들이 다양한 시공간과 맥락에서 어떻게 대안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했는가를 볼 것이다.

1. 금융의 대안적 재해석

금융을 대안적으로 재해석하고자 시도하는 커먼즈들은 저축, 신용, 이자 등 금융을 구성하는 기존 요소들이 이해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해당 요소들의 대안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의 방카 에티카((Banka Etica)와 스웨덴의 JAK 은행의 사례를 살펴본다.

1) 이탈리아 방카 에티카

이탈리아의 방카 에티카는 제도권 대안금융 은행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윤리적 금융 협동조합이던 막두에 파이낸스(MAG)를 전신으로 한다. 막두에 파이낸스는 성폭력 피해여성 등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기관이었다(이경숙, 2006년 11월 15일). 제도권 은행이 아니던 막두에 파이낸스가 법적 규제를 받아 일반 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비영리단체 등 제3섹터들의 금융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여러 비영리단체가 윤리은행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임영주, 2005년 10월 12일). 모금활동을 통해 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모은 결과로 탄생한 은행이 방카 에티카다. 방카 에티카는 1998년 12월에 이탈리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을 인정받았다(Banca Etica 홈페이지, 2022).

방카 에티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 수신을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금융활동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권리’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금융활동이 지닌 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Banca Etica 홈페이지, 2022).

방카 에티카의 저축은 개인재와 공통재(common good)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방카 에티카에 따르면 저축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개인재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중개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조직에게 유통되어 공통재로서도 기능한다. 이에 방카 에티카는 공통재를 잘 조성하고, 필요한 사람 및 조직에게 잘 유통되도록 돕는다(Banca Etica 홈페이지, 2022). 방카 에티카의 수신 시스템은 이런 가치를 반영한다. 방카 에티카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투자될 분야를 사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일자리, 환경단체와 영농조직, 제3세계 협동조합 발전과 공정거래, 문화·교육 활동 중에 고를 수 있으며, 이자율 또한 주어진 범위에서 직접 설정한다(임영주, 2005년 10월 12일).

방카 에티카에서 신용이 이해되는 방식 또한 독특하다. 방카 에티카에서 신용 접근권은 개인의 권리로서 이해된다. 신용 접근권은 개인이 삶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권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용은 책임, 신중함, 공정성을 수반한다. 신용에 대한 권리의 다른 한편에는 채무자가 위탁된 재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Banca Etica 홈페이지, 2022).

2) 스웨덴 JAK 은행

스웨덴 JAK 은행은 세계 최초의 무이자은행으로, 1993년에 정부로부터 정식 은행 인가를 받았다. 2016년 기준으로 3만 9,000명의 조합원과 20개 조합사를 두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저축액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예금액과 예치 기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박요셉, 2016년 10월 27일).

JAK 은행은 1930년대 초에 덴마크에서 농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이자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JAK에 따르면, 돈이 돈을 버는 이자는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다. 가령 생산자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이자가 붙고, 이 이자는 상품에

전가되어 가난한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한다(안진구, 2012). 나아가 JAK 은행은 현재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쉴 곳, 교육 등을 제공하기에 충분함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이 도달되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무이자 시스템을 통해 자본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한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JAK 은행에서 예금은 연대이며, 용자는 서로를 돕는 행위로 의미화된다(PROJUSTICE 홈페이지, 2022).

한국의 희년은행은 JAK 은행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사례다. 희년은행은 무이자, 무담보, 빚탕감의 원칙을 바탕으로 무이자 은행을 운영한다. 빚을 ‘착취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이해하며, 이를 위해 금융을 재의미화하고자 시도한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외, 2018년 11월 22일). 희년은행에 따르면, 금융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돈을 쓸 일이 없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것이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외, 2018년 11월 22일).

이와 같이 스웨덴 JAK 은행 및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희년은행은 ‘무이자’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을 재의미화한다. 이들에 따르면 예금, 용자, 부채 등 금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를 돕는 실천의 일부다.

이처럼 방카 에티카 및 스웨덴 JAK 은행의 사례는 기존 금융을 구성하는 여신과 수신, 저축, 신용, 이자 등의 요소를 재해석하고 전유하여 대안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해당 조직들은 법적으로 승인된 제도권 은행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즉 금융의 구조를 대안적으로 재해석하는 금융커먼즈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인가된 은행으로서 자리하여, 대안금융 생태계와 제도권 금융 생태계를 동시에 구성해내는 셈이다.

2. 대안적 가치에 대한 투자 및 용자

투자 및 용자의 기준으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금융커먼즈도 존재한다. 이는 신용위험 및 상환 가능성을 투·용자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권 금융과 다른 점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GLS 은행, 일본 도쿄의 미래뱅크,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 등은 공통적으로 기존 은행의 투자, 용자 관행과는 상이한 기준으로 대안적인 금융 실천을 수행한다. 이때 은행의 금융 전문가를

넘어 지역 주민이나 활동가, 지자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금융 실천에 관여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독일 GLS 은행

독일 협동조합은행인 GLS 은행 또한 자금조달 및 투자 시 사회,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는 은행이다. 예적금, 대출, 투자, 펀드,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80억 유로(약 11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EBN 산업경제, 2022년 1월 7일). GLS는 2022년 올해의 은행(Bank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GLS 은행 홈페이지, 2022).

GLS 은행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지향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시민들이 1974년에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면서 출발하였다(信金中央金庫 総合研究所, 2008년 3월 12일; 이정민·노태석, 2018에서 재인용). 1974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은행이 조합원들에게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약이 폐지되었다. 이에 GLS은행은 조합원의 범위를 넘어 대중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LS은행은 독일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recht)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협동조합인 동시에,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은행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한다(이정민·노태석, 2018).

GLS 은행은 사회, 환경적 기준을 공개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 대출하지 않는다. 투자 시에는 기후변화 대응, 투명한 보고 등 8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 적격성을 판단하고, 자금 집행 이후에도 승인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이종익, 2022년 1월 7일). 동시에 예금을 어디다 투자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에 있어 예금자의 책임 또한 강조한다(문진수, 2021년 7월 1일). 대출은 사회 및 건강, 교육 및 문화, 재생에너지,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경제, 주거로 총 6개 분야에 국한한다(이종익, 2022년 1월 7일). GLS는 대출 자체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긍정 기준과 반환경적, 반인륜적 요소를 배제하는 부정 기준을 두고 있다(민병길·이상민, 2015).

특히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Mietshäuser Syndikat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안적인 주택 공급을 시도하였다. Mietshäuser Syndikat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스콧(squatting)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Mietshäuser Syndikat에 지원을 요청하면, Mietshäuser Syndikat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과 자금 조달 방식을 함께 고민한다. 이후 부동산 매입 시 Mietshäuser Syndikat와 해당 공동체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가 된다. 이후 두 소유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Mietshäuser Syndikat, 2022). GLS 은행은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주택 소유 실험에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은 GLS 은행의 대출을 활용하여 시작하고, 이후 직접신용(연대금융)을 매개한다. 직접신용을 매개함으로써 이자와 주택 임대료가 낮게 유지되게 한다(GLS 은행 홈페이지, 2022).

2) 일본 도쿄 미래뱅크

일본 도쿄의 미래뱅크는 탈원전, 친환경상품 생산, 에너지전환 사업 등 친환경적인 실천에 자금을 공급하는 비영리 은행(NPO 은행)이다. 1994년 4월 미래뱅크사업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미래뱅크사업조합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미래 협회(未来舎の)와 주택에 금융을 지원하는 천연주택뱅크(天然住宅が設)가 설립되었다(미래뱅크 홈페이지, 2022). 세 단체가 2019년 2월에 합병되어 미래뱅크가 탄생하였다. 미래뱅크는 도쿄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에 대해 매우 낮은 금리의 배당을 지급한다. 자본 및 기술력이 있는 주체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로 계량화된 재무 정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금융에서 배제되어 온 친환경적 실천가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투·융자를 시행한다(이원영·양준호, 2020년 11월 30일).

융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금융전문가, 시민, 출자 시민, 지역 환경운동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이원영·양준호, 2020년 11월 30일). 동시에 융자 시 도쿄도 등 지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공식 신용보증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공유한다. 지자체는 융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이원영, 2020년 11월 14일).

미래뱅크의 경우 수신 업무는 하지 않으며, 법적 조직 형태는 대부업체다. 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금 취급 기관이 될 시 일본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어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양준호, 2020년 10월 16일).

3) 미국 노스다코타은행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노스다코타은행(Bank of North Dakota)도 지역의 에너지전환, 서민 주택 공급 등의 윤리적 실천에 투자, 용자해왔다. 2018년 기준 약 7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김현대, 2019년 8월 26일).

노스다코타 은행은 일본 도쿄 미래뱅크와 유사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도쿄 미래뱅크 또한 도쿄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지자체가 신용을 보장하는 등 지역이 은행의 작동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노스다코타은행의 독특한 점은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지역공공은행이라는 것이다. 1919년 7월 주민 투표를 거쳐 주 예산 200만 달러를 자본금 100%로 설립하였다(김현대, 2019년 8월 26일). 노스다코타 은행의 모든 예금은 주정부에 의해 보장되며, 주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기적 평가 및 회계 감독을 받는다(김용재, 2020; 민병길·이상민, 2015). 동시에 주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해서 주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도 기능한다(양준호, 2021년 12월 7일).

노스다코타 은행은 지역 내 상업은행 및 신협과도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 노스다코타 은행은 협조 융자(participation loan)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 외에 개인이나 법인에게서는 대출 및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사회기반시설, 농업프로젝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이다(김용재, 2020). 이러한 자금 조달 결정 과정에는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금융전문가, 시민, 지역 환경운동가 등이 융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도쿄 미래뱅크와 유사하게, 노스다코타 은행 또한 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관계자들이 관여한다(양준호, 2020년 10월 7일).

나아가 노스다코타 은행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8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해 지역 근로자들이 지역 내 상업은행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상업은행의 소유권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시도한다(김용재, 2020). 즉 노스다코타 은행의 사례는 제도권 은행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제도권 은행의 주인을 바꿔나가는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대안성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독일의 GLS 은행, 일본 도쿄의 미래뱅크,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 등은 자금조달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수익성 등 기존 은행의 투·융자 기준과는 상이한 원칙을 실천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단체의 규모와 공간적 범위, 투자 및 융자의 기준과 원칙, 심사 과정 등은 다양하나, 공통으로 기존 금융 생태계와는 차별화되는 관행을 구성해나간다.

3. 연합·연대체 은행

연합, 연대체 은행은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하는 은행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 또한 제3섹터의 비영리조직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등 공동체를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절에서는 연합 및 연대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라보랄 쿠차는 협동조합 연합체의 자체 금융기관이며, 캐나다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는 여러 단위 신탁의 연합체인 데자르댕 신탁의 하위 조직이다. 국제가치은행연합 GABV는 윤리적 은행의 협력체로 2021년 기준 40개 나라, 65개의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1)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다양한 부문의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체다. 2016년 기준으로 약 260개 회사를 보유하고, 매출액은 연간 22조 원에 달했다(박요셉, 2016년 10월 27일). 이는 1943년 기술전문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한다. 1956년에 학교 출신 5명이 파산한 사기업을 인수하여 만든 울고(ULGOR)라는 난로제조회사를 만들었고, 이후 해당 회사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들이 탄생한다. 이후 이 개별 협동조합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3).

카하라보랄(Caja Laboral)은 노동자 신용금고로 몬드라곤의 자체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여수신을 하며, 비생명보험, 투자기금, 연기금 관리, 부동산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민병길·이상민, 2015). 나아가 카하라보랄은 회원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 카하라보랄은 회원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는지, 조합원의 임금 수준은 적절한지,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가 3대 1을 넘지는 않는지 등을 정기 적으로 감사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3). 이러한 역할을 통해 카하라보랄은 각 협동조합에 자금을 공급하고 협동조합 연합체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였다(민병길·이상민, 2015).

현재 카하라보랄은 합병을 거치며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카하라보랄과 신용조합인 이파르 쿠차(Ipar Kutxa)가 합병을 진행하였다. 합병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협동조합 은행의 성격 또한 변화한다. 이전에 개별 협동조합들의 자금원 역할을 하는 지원 조직이었다면, 이후에는 대출보다 수익 중심의 소매금융으로 전환한다(이원표, 2016년 12월 8일). 대출원이 많아지고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이 이어진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원보다 그 자체로 몬드라곤의 수익원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원표, 2016년 12월 8일).

2) 캐나다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 노동조합-협동조합 연대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댕은 1900년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은행에서 시작해 현재는 세계 최대의 신용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가난한 시골농부들이 다달이 10센트씩 모아 시작하였으나, 2011년 기준으로 자산이 216조원, 조합원은 580만명에 이르렀다(김현대, 2012년 8월 16일).

데자르댕 신탁은 여러 단위 신탁의 연합체이며, 이 안에는 주민금고와 경제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민금고는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역 기반으로 주민들이 회원 가입되어 있다. 경제금고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단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제금고 중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 사례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피에르-올리비에 마우, 2021).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연합은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00년대 중반에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 내 데자르댕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며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상호발전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1960년대에 노동자 가족의 심각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데자르댕 신용협동조합이 연대하여 대출지원 협동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피에르-올리비에 마우, 2021).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과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대경제금고의 성격과 역할도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1990년대 초 퀘벡의 경제위기에 기인한다. 이를 계기로 발전 방식에 대한 회원 조합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목표로 하는 재단을 창설하였다(피에르-올리비에 마우, 2021). 즉 지원 조직을 넘어 직접적인 투자와 사업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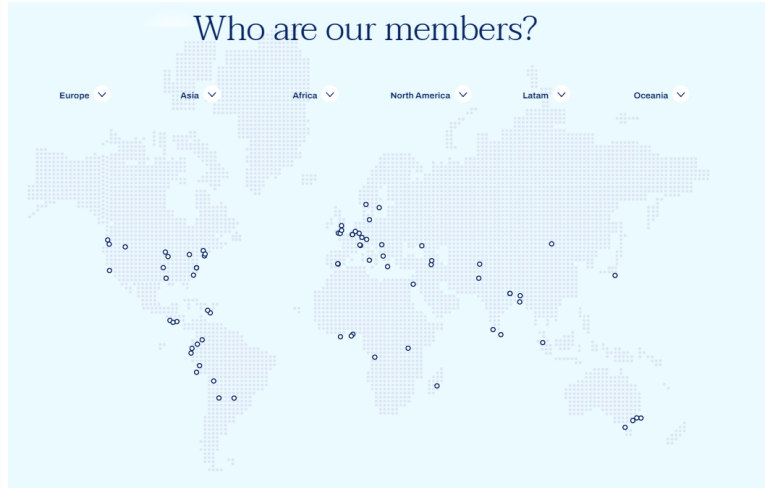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과 캐나다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체를 위한 금융의 활용은 각 공동체들이 성장하고 공동체 간 연결성을 갖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합, 연대체 은행의 성격이 변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설립 초기에 공동체 및 조합원에게 수신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지원 조직을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금융 기관으로 자리한다.

3) 국제가치은행연합 GABV

마지막으로 살펴볼 금융커먼즈는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이하 GABV)다. GABV는 윤리적 은행의 협력체이다. 2009년에 12개의 은행을 주축으로 창설된 GABV는 2021년 기준으로 40개 나라, 65개의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김현대, 2021년 7월 1일). GABV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신, 수신 업무를 해야 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 기관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독립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금융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2018; 이정민·노태석, 2018에서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이탈리아 방카 에티카, 독일의 GLS 은행 등 또한 GABV의 참여 단체다. GABV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6가지 원칙(Principles of

Sustainable Banking)을 제정하고 연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용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윤리적 은행 간의 교류를 도모한다.

<그림 2> GABV 회원국



출처: GABV 홈페이지(<https://www.gabv.org/members/>)

한국에서도 GABV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은행 연합체를 만들고자 한 시도가 존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사회적경제의 부문, 지역, 업종협의회를 아우르는 전국단위 네트워크인 ‘(가칭)사회연대신탁’을 만들고자 시도한 바 있다(이상진, 2021년 5월 28일). 이의 설립이 시도된 배경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한다.

사회연대신탁은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단체신탁의 형태를 표방하며, 170여 명의 조합원이 3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아 2021년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이상진, 2021년 5월 28일). 그러나 신탁중앙회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국 단위로 단체신탁을 인가한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신탁 인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2022년 8월 결국 해산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행위자 · 관계 · 자원에 기초하여, 여러 대안금융 생태계가 발전해왔다. 이는 금융 커먼즈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금융 커먼즈가 대안적 실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맥락에서 대안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03 |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 과정과 구조

제3장에서는 인터뷰와 금융커먼즈 집담회를 통해 고찰한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 과정과 구조를 개괄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금융 생태계를 만들게 된 맥락과 지향점, 그리고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대안금융 실험과 공동체들이 만든 금융 생태계의 구조와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때, 대안금융 생태계의 구조는 먼저 금융의 구조, 논리, 관행을 고찰하고, 이후 운영과 거버넌스 구조 및 특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대안적 가능성과 이들이 부딪히는 한계를 포착할 것이다.

1. 대안금융 생태계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인터뷰와 집담회에 참여한 대안금융 실험과 공동체들은 전반적으로 시민운동, 지역운동, 커먼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각 운동의 지향점과 문제의식은 대안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금융의 구조가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각 대안금융 실험 및 공동체가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 맥락과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1)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건맥 1897 협동조합, 해빛투게더, 사람과 공간,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유 성북)은 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및 시민 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들 단체는 활동의 중심이자 공동의 자원이 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금융을 활용하였다. 공간 조성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만큼, 지역자산화 운동, 금융기관 대출, 정책 재원과 금융, 크라우드펀딩에 이르는 다양한 금융 채널을 조합하여 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건맥 1897 협동조합은 마을의 공동의 자산인 펍과 호텔을 만들기 위해 시민출자, 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상품,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플러스를 통한 임팩트 투자와 한국사회 가치연대기금의 매칭펀드, 목표 지역 신탁 부동산 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 채널을 동원하였다. 이처럼 많은 금융 수단을 동원하여 건맥 1897 협동조합이 마을의 공동 자산을 만들게 된 계기는 목포 만호동의 건해산물상가거리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다. 목포 도시재생센터는 건해산물상가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 건맥(건어물과 맥주) 축제를 개최하였고,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역자산화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건물 임대와 인테리어 비용 마련을 위해 시민 출자를 진행하였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건맥 1897 협동조합은 건물을 매입하여 자산화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금융을 공간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자본과 자산화가 상호 의미화를 거친다고 보았다. 어떠한 자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공동의 자산을 만든다는 것의 취지를 최대한 이해하는 대안적인 금융을 찾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자산화의 과정을 통해 자본의 성격과 조달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확보하는 일이니까, 그 자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낸 자산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의 성격에 의해서 활동의 내용이 굉장히 규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부 자본을 고금리로 많이 끌어와서 자산을 확보하면, 그 고금리와 원리금을 빠르게 상환해 내야 하기 위해서 자산을 공익적으로만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약탈적 금융 자본과 손을 빨리 끊어야 하니까, 이 자산을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확보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끊기 위한 활동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애초의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달하는 자본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산화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자본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금융이나 인내 자본을 조금이라도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죠. 물론 많지 않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중략) 저희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로 토대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사회적인 프로젝트에 자본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자본의 성격, 조달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꿔 가는데 건맥1897 협동조합도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맥 1897 협동조합, 2022년 7월 19일 인터뷰

해빗투게더, 사람과 공간 또한 공간 시민자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의 소유자에 따라 공동체 공간의 성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예로, 마포구의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시민자산화를 통해 공간을 이윤창출의 수단에서 시민의 삶터·일터·놀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빗투게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해빗투게더는 마포구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하던 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자체적인 자원과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공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민과 지역운동 단체들이 끊임 없이 쫓겨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공동의 소유를 통해 사회적 공간을 지키고 확장해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시민자산화 사례라는데 어찌보면 한국 사회 부동산 소유구조와 다른 방식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 다수의 공동소유로 재구조화하는거니까요. (중략) 각자가 조합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고. 자본의 협동도 하지만 생각의 협동도 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정말로 지역의 공유공간, 모두의 놀이터가 되는거 아닌가. (중략)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너무 달라져요. (중략) 이제는 좀, 우리가 시민이 소유하는, 방식을 해도 좋은거 아닐까. 500명이 100만원 내면 5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100만원씩 내면서 자기 자금을 계속 올리면, 지금처럼 부대끼는 구조를 낮추면서 하고 싶은걸 더 세계 할수 있잖아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의외로 가능한.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 해빗투게더, 2022년 8월 4일 인터뷰

시민자산화를 위해 해빗투게더는 조합원 출자금, 정책금융 및 공모사업,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원리금의 부담 역시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듯 금융은 커먼즈와 커머닝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기도 하며, 커머너들은 커머닝의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의 관행과 의미를 창조한다.

“저희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인데. (중략) 보니까 한 1100만 원 돼요 한 달에 원리금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이 건물을 처음에는 다 확보하고 싶었지만, 원래 제시던 임차인들이랑 협의를 해야하잖아요. 우리가 쫓겨나는게 싫어서 시민 건물주가 되었는데, 똑같이 할수는 없고. 그러니까. 건물 매입당시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협의가 될때까지 지금 2,3층 두개층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인데. 이걸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이자는 어떻게 내고 있지만, 원금 상환하기가 어렵죠. 전층이 확보되어야 시너지도 나오고 수익률도 올라갈텐데. 1층에 커뮤니티 펌 같은 걸 만들고 위에 게스트하우스랑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그래서, 올해 자산의 협동이라는 계획을 냈어요. 일하는 사람 몇명이 머리싸고 어떻게 이익낼까 고민하는 대신에, 모두가 출자금을 늘리도록 독려해서,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자고. 우선 올해 1억. 한방에 못바꾸더라도 조금씩. 이를테면 똑같은 이자를 내더라도 차라리 조합원한테 주자. 이렇게. 그래서 원금을 대환하는거죠. 1억원 원금을 조합원들의 장기차입으로 대체하자. 뭐 이자를 더 적게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수도 있고. 똑같은 이자라도 모르는 데 주느니 조합원에게 주자 이렇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해빛투게더, 2022년 8월 4일 인터뷰

강서양천민중의집을 전신으로 하는 사람과 공간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과 공간은 기존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의 매각으로 인해 등지내몰림의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자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빛투게더와 유사하게, 사람과 공간 또한 법인 조합원 출자금,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등 정책금융,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의 공모사업, 금융권 대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였다. 여러 재원을 동원하여 시민자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구성원들은 전망과 목표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간 그 자체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사람과 공간에게 자산화한 공간은 일터와 삶터, 노동운동과 지역운동, 노조와 주민을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종래의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은 상이한 지향을 갖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사람과 공간은 자산화한 공간을 중심으로 ‘노동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감각을 만들고자 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을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중략) 협동조합이 도시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라이더 유니온이 배달을 해줘요. (중략)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접점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노동하는 사람들이 내 바로 이웃이다. (중략)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노동 감수성이 바뀌고.”

- 사람과 공간, 2022년 8월 3일 인터뷰

사람과 공간은 시민자산화를 시민의 힘으로 공유자산을 만드는 운동이자, 건물 및 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Youtube 채널, 2021년 6월 24일). 이는 사람과 공간이 시민자산화라는 커먼즈를 위한 금융 실험을 통해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얽힌 사회적 관계들을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자산화 개념은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자산화 개념을 쓰지 않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이런 개념이 있고 커먼즈 운동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국공유라고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공유. 말 그대로 공동의 소유 방식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사람과 공간, 2022년 8월 3일 인터뷰

공유 성북은 건맥 1897 협동조합, 해빛투게더, 사람과 공간의 사례와는 달리, 공적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시도하였다. 공유 성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람과 단체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목적으로 2014년에 결성되었다. 이후 공유 성북은 주민, 예술가, 기관 및 공공 주체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민·민, 민·관 협치형 커뮤니티로 발전하였다 (공유성북원탁회의, 2020). 공유 성북은 미아리고개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미인도’라는 이름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만들고, 예술인마을을 조성하여 예술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공간 구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여러 공적 재원을 활용하였다. ‘미인도’ 문화예술 거점공간은 2014-5년 아르코 공공미술 ‘지역재생+예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예술인 공공주택은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고 성북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방식은 공유 성북이 지향하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자금 조달의 방식 및 자체 재원의 마련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플랫폼으로서 남아 있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업체나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지양하고, 이로써 여러 공동체들이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남겠다는 결론이었다. 그렇기에 외부 재원의 활용은 공유 성북의 지향과 존재 의미를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거는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공탁(공유 성북 원탁회의)은 그냥 일종의 공적 플랫폼으로서 있자고 결정을 했어요. (중략)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되게 많거든요. 20~30개는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수익이나 이런 건 만들고, 공탁은 온전히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처럼. 이렇게 그냥 그 플랫폼들이 올라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정해진 것 같아요. (중략) 우리가 사업으로 만나지 말자는 건 처음부터 정해놓았거든요. 놀다가 지쳐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노는 걸 기반으로 우리는 만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되게 많아요. 일과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면 야 우리가 일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재단 직원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지금도 그거는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 공유 성북, 2022년 7월 25일 인터뷰

이처럼 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및 시민 운동을 펼쳐나가는 단체들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였다. 상술한 사례는 커먼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단순히 공동의 자원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단체의 지향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단체들은 자금 조달 방식을 달리하며, 자금 조달의 과정 속에서 공간·

관계·자본·금융의 의미를 전유 및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커머너들의 금융 실천은 ‘커먼즈를 위한 금융’이 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공간 커먼즈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실험

대안적 자금 조달의 방식을 선택하고 금융의 의미와 기능을 재해석하는 것에 더하여, 공간 커먼즈의 구성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실험을 도모하는 단체들이 있다. 공동체은행 빈고, 터무니 제작소, 희년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단체는 다양한 금융 실험을 통해 제도권의 금융 논리를 전유하고자 시도한다.

공동체은행 빈고는 서울 해방촌의 ‘빈집’ 공동체에서 출발하였다. 빈집은 누구나 손님이자 주인이될 수 있는 공간으로, 빈집에 머무는 모두가 주거비와 살림살이를 함께 공유한다. 2008년 세 칸짜리 가정집에서 출발한 빈집은 곧 여러 개의 빈집으로 구성된 ‘빈마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빈집의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증금을 제공하였는가’에 따른 권력 관계가 발생하였다. 빈집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빈마을 금고’를 의미하는 ‘우주(宇宙)살림협동조합 빈고’를 설립한다. 빈집 공동체 구성원들이 빈고에 출자한 금액은 곧 빈집의 조성을 위한 공동의 자본이 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빈고는 빈집과 공동체에 돌아오는 수익을 만인과 공유하기 위해 ‘공동체은행’으로 발전하였고, 2014년 우주살림협동조합에서 공동체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의 빈고가 되었다 (공동체은행 빈고 홈페이지; 웹진공유도시, 2021; 지음, 2013).

공동체은행 빈고는 공간 커먼즈의 형성 과정에서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자 한 커머너들의 고민이 자본의 커머닝까지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빈고는 여러 공동체에게 공유 공간 조성을 위한 보증금 등의 자금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수입을 공동의 자본으로 전환하여 외부의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과의 연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계, 공통계, 빈땅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커머닝) 실험을 전개한다.

터무니 제작소와 희년은행은 공동체 공간의 조성만큼이나 청년 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소속된 터무니 제작소는 주거 빈곤 청년들을 위한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니 있는 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주거 빈곤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자금을 모아 청년들의 주택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이 같은 사업의 모델이 정기예금과 유사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2019년 터무니 제작소는 북서울 신용협동조합과 함께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이라는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시민들이 소셜 예금에 가입하면, 터무니 제작소는 예금액으로 청년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의 출시 이후 터무니 제작소는 SH, LH, 롯데장학재단 등 다양한 민관 주체와 협업하며 청년 주택을 확장해왔다. 새로운 협업주체가 생길 때마다 청년 주택을 위한 금융 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예컨대, SH 공사의 빈집 매입·재생사업과 결합한 ‘터무니 있는 SH 희망 아지트’ 사업의 경우 SH공사가 빈집활용 리모델링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터무니 제작소는 시민출자금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롯데장학재단과의 협업 사례에서는 보증금을 시민출자금으로 지원하고, 롯데장학재단이 월세를 지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터무니 제작소는 이처럼 여러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구조를 실험하며 청년 주택을 확산했다. 이에 더하여 입주 청년들과 지역을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게 하였는데, 터무니 있는 집에 사는 청년들은 입주기간 동안 지역을 활동을 전개나간다. 즉,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금융 운동이 지역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희년은행 역시 청년 부채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안적인 금융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년함께라는 단체로부터 출발하였다. 희년함께는 태백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희년 정신과 원리를 토지제도에 구현하는 운동을 결성하는 것에서 시작됐고, 헨리조지의 토지정의 사상을 중심으로 토지정의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기독교인이 아닌 시민사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설립하여 활동해왔다 (희년함께 홈페이지). 그러던 중 2010년대 중반, 한 후원자가 약 2000만 원을 후원하였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청년 부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춘 희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특히 춘천의 한 교회에서 고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빚을 무이자로 전환해주는 운동이 시작 되었고, 이것이 무이자 은행 희년은행의 시작이 되었다. 희년은행은 기독교 희년 사상에 기초하여 무이자 저축과 무이자 대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9세 미만 청년 조합원의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고금리 전환 대출과 함께 희년은행은 개인 주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기존 희년함께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주거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개인 주거 지원 대출에 더하여, 최근 희년은행은 공동체 주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무이자 대출 실험에 기초하여 청년을 지원하고, 공동체 네트워크와 공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단체들은 금융의 의미와 기능을 재해석하고, 공간 커먼즈를 조성 및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실험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과 공간의 커머닝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확장해 나갔다. 또한 지역운동, 자본의 커머닝 등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커먼즈의 실험은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대안적인 실천과 이에 기초한 생태계를 확장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3) 시민/지역운동과 대안적 금융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단체들이 공동의 공간 자산을 만들기 위해 금융을 전유했다면, 시민운동 혹은 지역운동의 과정에서 대안적인 금융의 필요성을 느껴 금융 생태계를 창조한 사례도 있다. 한 예로, 도농 직거래 운동을 전개하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에서 출발한 한살림 연대기금은 운동 과정에서 대안적인 공급망 금융의 필요성을 느껴 금융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농가에서 농작물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농산물과 같은 동산담보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이 낮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살림은 공급망 금융에서 정성적인 기준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한살림의 책임 생산 · 책임 소비의 가치를 책임 금융으로 확대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농 · 축 · 수산업의 현장을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금융 체계에 의존하기보단 생산지, 농가, 가공생산지를 위한 대안적인 지원 금융을 한살림 조직 내에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 단체가 기초하는 운동의 맥락과 고유한 특성에 따라 금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동공제회 풀빵은 노동자의 삶의 필요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조합 노동자를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을 선택했다. 풀빵은 노동조합, 사단 법인,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 단체에 속한 노동자들에 공제 및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풀빵은 금융을 활용하여 비단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 운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제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제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노동공제라고 칭했던 이유도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노동공제회’가 1920년도 4월 11일 날 창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확히 ‘노동공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중략) 어쨌든 배경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좋은 삶 혹은 삶의 필요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 그게 어찌면 금융 방식이죠. 공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금융이라고 표현하지만 공제는 금융의 전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위협을 대비하고 위협을 대비하는 게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아프고 다치고 했을 때, 금전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돈을 함께 모아서 그 돈으로 또 필요한 돈들을 좀 조달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중략)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결력도 말씀하셨는데, 그 단결력이라는 게 노동조합은 어떤 특정 시기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단결이 이제 극대화되는데요. 공제는 반대로 일상의 어떤 연대, 일상의 단결, 혹은 자조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노동조합이 공제를 탑재했을 때. (중략)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의 어떤 연대 상호 부조를 하면서, 특정 어떤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힘이 뿔어져 나오는. 그래서 노동조합과 공제가 만났을 때에는 굉장한 시너지가. (중략) 노동 운동도 공제를 탑재하면 더 단단하게 노동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망이 있으니까. 투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조선 산업 협력업체들 투쟁할 때도 사실 그 밑에 안전망들이 더 있다면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할 수 있었겠죠.”

- 노동공제회 폴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지역운동에서 출발한 도토리회, 다람쥐회,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지역 공동체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에서 잉여와 부가가치가 순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관계망을 구축한다. 지역의 특성은 해당 단체들이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마포구는 시민운동의 역사가 길고, ‘성미산 마을’, ‘민중의 집’ 등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공간이다. 모아는 이러한 마포의 다양한 공동체의 힘을 모아 공동체 경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소비 운동부터 공동체 은행 운동, 필요 생산 운동, 공유재 확대 운동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소비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공동체는 갑자기 2015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지역에 해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같이 싸우면서, 혹은 무언가를 만들면서 해왔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적극적인 관계적 소비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모아를 만들면서 소비 운동을 제안한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마포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홍성군 흥동면에서 지역화폐와 공동체 금융 운동을 하고 있는 경제 협동체 ‘도토리회’ 역시 지역적 기반에 기초하여 출발할 수 있었다. 흥동면의 귀농·귀촌인들은 녹색당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화폐·금융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흥동면이라는 작은 공간적 범위는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되어주었다. 도토리회의 초대 회장은 귀촌 이전 서울에서도 대안적인 화폐·금융 실험을 고민하고 시도하였으나, 서울의 넓은 공간적 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조합원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기 매우 어렵고,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화폐·금융 실험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흥동면과 같은 농촌 지역은 인구 규모도 작고, 자주 만날 수 있으며, 상호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단순히 거래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정보와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 역시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한다.

“서울과 좀 다르게 지역이니까 가능한 측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소식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 공유 소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략). 제가 이제 녹색당 독자분들하고 한 20명 정도 돼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서울에서) 은행하고 재활용품 거래를 같이 한번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동네가 워낙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거래가 거의 건수도 적을 뿐더러, 일어난다 하더라도 되게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서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좋은 뜻을 갖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표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역, 시골이나 농촌 기반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 안에 서로

나를 게 있고. 또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서 하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에서 출발한 다람쥐회 역시 지역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다람쥐회가 주로 활동하는 영등포는 과거 방직, 피혁, 맥주, 군수 공장 등 여러 공장들이 자리한 유명한 공장지대였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공장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소모임들의 지붕 같은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갔다. 다람쥐회는 그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은행 갈 시간이 없던 여공들에게 은행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다람쥐회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한국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 되었다.³ 다람쥐회의 활동을 지역의 수요에 따라 변해왔다. 노동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생필품 공동구매 활동부터, 생활경제공동체로서 생활협동조합, 교육공동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의도의 보조출연 노동자와 영등포역 일대의 노숙인을 위한 금융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운동 및 지역운동 단체들은 운동의 과정에서 대안금융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창조하였다. 이때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은 단순히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그 자체가 운동의 주요한 실천으로 자리잡는다.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성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지역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즉, 대안금융과 시민·지역운동의 생태계는 상호 긴밀히 얽혀 서로를 지탱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³ 신용협동조합으로 등록되었을 당시의 정식 명칭은 ‘영등포산업개발신용협동조합’이었다. 하지만 이 신용협동조합은 박정희 정권 당시 노동자 집결과 저항의 중심으로 간주되면서 탄압을 받았고, 급기야 1978년에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받는다. 이에 영등포산업개발신용협동조합은 자발적인 해산의 절차를 거치고, 그 자리를 현재의 비인가 협동조합인 ‘다람쥐회’가 자리하게 되었다.

2. 대안금융 생태계의 구조

앞 절에서 대안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는 맥락과 계기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이러한 대안금융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는 금융 및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의 측면에 주목하여 대안적인 금융 실험과 공동체가 새로운 금융 주체 · 논리 · 수단 · 관행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구조를 형성하는 동학을 포착한다. 또한 대안금융 생태계가 기초한 조직의 형태와 운영 및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1)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구조

금융경제학에서 정의하는 금융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 공급자 간의 화폐 및 금융자산의 흐름을 의미한다. 대안금융 실험과 공동체는 금융 주체 · 논리 · 수단 · 관행을 창조함으로써 이러한 금융의 구조를 재구성 한다. 한 예로, 많은 단체가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여 · 수신 활동을 진행하지만, 그 기저의 논리를 전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신용-부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균등한 관계의 지형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보통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돈을 대출해서 빌려 쓰는 사람이 보통 을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은행이 그런 기능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호혜적인 돈을 쓰는 사람이 이걸 공동체를 위해서, (대출) 이자가 저희는 4% 예요. 그리고 저축 이자는 1%. 어찌 되었든 4%를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도움을 받지만, 돈을 쓰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고마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거를 인정해 주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죠. 워낙 금융의 문제는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거죠. (중략) 저희는 30% 지급 준비율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70%는 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은 계속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참 신기하게도 70프로까지 꼭 대출이 돼요. 이용률이 저희가 많이 홍보하지 않았지만 되게 사람들이 고맙게도 은행을 인정해 주고 여기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갚아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하니까 그렇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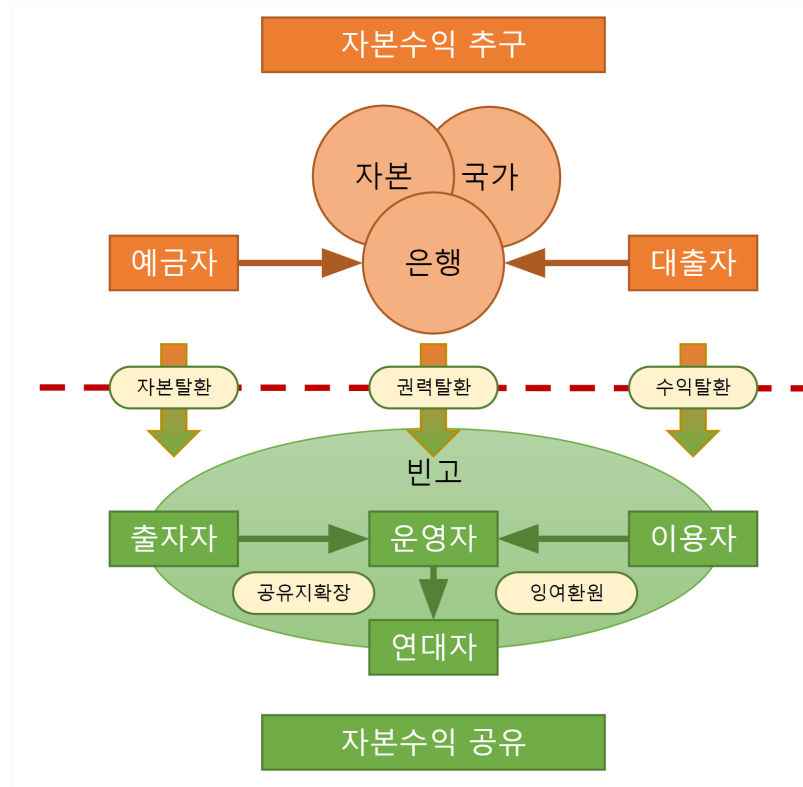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나쁜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조 금융이죠.”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공동체은행 빈고 역시 기존 자본주의적인 은행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금융자본주의의 구조 · 욕망 · 삶의 양식에 저항하는 관행을 만들고자 한다. 빈고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예금, 대출, 이자, 이사회와 같은 핵심 요소를 차용하지만,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커먼즈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간다. 빈고는 예금 · 대출 · 이자라는 표현 대신 출자 · 이용 ·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을 공동체들은 공유지를 조성 및 확장하기 위해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출자자, 이용자, 운영자, 연대자에게 각각 분배되고, 공유지에 남아있게 된다. 이때, 연대자에게 분담되는 몫이 ‘지구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은 ‘연대’하고자 하는 외부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과 연대하기 위해 지구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빈고의 체계에서 출자는 단순히 화폐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닌, 화폐를 공유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공유자원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통해 공유지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출자와 이용활동을 통해 형성된 잉여금은 연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금으로 변화한다.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금융시스템과는 달리, 자본수익을 사양함으로써 공동체와 공유지의 유지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빈고는 모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금융 체계의 불평등한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자 · 이용자 · 연대자 · 운영자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그림 3〉 공동체 은행 빙고 구조



출처: 공동체 은행 빙고 홈페이지 (<https://bingobank.org/>)

출자를 화폐의 공유자원 전환으로 이해한 빙고의 사례와 유사하게, 풀빵 또한 조합원들의 예치금으로 공동의 금고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풀빵이 운영하는 ‘풀빵비상금고’ 프로그램은 노동자 개인과 조합원 공동의 비상금고를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풀빵비상금고’는 가입자가 월별 일정액 납부를 통해 90만 원을 적립하면, 특별응원금 1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의 비상금을 적립한다. 그리고 이를 수령하지 않고 유지할 시 300만원까지 소액대출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자 소득을 위해 화폐를 은행에 예치하는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취약 노동자들은 비상금이 보통 마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상징적으로 100만 원을 마련하게 만드는데 90만 원은 이제 노동자가 매달 10만 원씩 9번 되면 90만 원을 만들고 10만 원을 매칭시켜줘요.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중략)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100만 원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100만 원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묵혀놓으면 거기에 3배수까지 소액 대출을 하는 것까지. 나 혼자 비상금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의 비상금고라고 제가 이제 호명을 했는데.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을 모아놓고 우리 돈 가지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그 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노동 금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향후 발전되면 실제로 노동 금고를 만드는 것까지가 풀빵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그림 4> 노동공제연합 풀빵 비상금고 안내문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풀빵비상금고

PLACE STAMP HERE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높은 은행 문턱에 막혀 좌절한 경험 있으시죠?
이제 이자 걱정을 덜어줄 <풀빵비상금고>를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가입혜택**
 - ①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9회차 또는 월 5만원씩 18회차 적립 (90만원)
 - ② 특별응원금 10만원을 더해 개인별 100만원의 비상금을 적립
 - ③ 적립 후 만기수령 가능. 비상금고 유지시 300만원까지 소액대출권 부여
 - * 풀빵비상금고는 1인당 생애 1회 가입원칙, 비상금을 만기수령할시 재가입은 불가
- 가입조건**
 - 풀빵기본공제 가입자 (월 6,000원의 행복, 풀빵의 기본공제)
 - 풀빵기본공제 혜택: 명절 선물 / 임원비 지원 / 재해사망금 300만원 소액대출 / 여행, 법률, 의료 등의 풀장 서비스 이용
- 제출서류**
 - ① 비상금고 가입신청서 ② 당사자조직 추천서 ③ 신분증 사본
 - ④ (세대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가입접수**
 - 2022년 4월 4일(월)부터 선착순 150명 한정
 - 접수방법: 필수서류를 당사자조직 담당자에게 제출
- 문의사항**
 - 노동공제연합 풀빵 02-2039-2341

From.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공제연합풀빵은 차비를 아껴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주었던 전대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 <풀빵비상금고>는 KT, 포스코, 사랑의열매가 지원합니다

출처: 노동공제연합 풀빵 홈페이지

(<http://poolbbang.org/notice/?uid=77&mod=document>)

인터뷰에 참여한 일부 대안금융 단체들은 고금리 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희년은행의 경우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고금리 전환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토리회 역시 무이자 대출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조합원 회비 뿐만 아니라, 인내 자본의 성격을 띤 출자금을 바탕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속한다. 이에 더하여 도토리회는 ‘대출 기여금’이란 제도를 통해 무이자 은행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대출 기여금이란 도토리회에 원금을 상환할 때 대출자가 함께 상환하는 의무 예금으로, 대출자는 원금의 약 1% 정도의 금액을 1년 간 도토리회에 예치한다. 의무 예치기간이 지나면 대출자는 대출 기여금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계속 예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출 기여금 제도는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희년은행은 무이자 저축 운동에 동참한 출자자들에게 ‘대출 포인트’를 제공한다. 저축액과 저축기간에 따라 출자자에게 대출 포인트를 지급하면, 출자자는 이 대출 포인트만큼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자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출자자는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면서 동시에 대출 포인트 만큼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희년은행은 또한 대출자에게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원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대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그리고 대출자는 스스로 쌓은 대출 포인트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대안금융 단체들이 기존 금융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틈새를 메우고 있는 만큼, 대출의 절차에서 여타 금융기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권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대안금융 공동체는 대출자의 필요나 상황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한다. 대출심사 역시 조합원 총회 등을 선출된 임기직의 심사단이 맡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동체은행 빈고의 경우 이용활동(대출)이 필요한 조합원 혹은 공동체가 상임활동가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용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지역 · 대표 · 운영 · 상임활동가로 구성된 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용활동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의결을 진행한다(빈고 홈페이지, 2022). 다른 대안금융 공동체에서도 유사한 대출심사 과정이 나타났다.

“이제 대출은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운영위가 지금 한 11, 12명 정도. 그래서 이제 매달 운영위 때 주요한 안건이 올라와요. 이제 대출 여부. 어느 분이 이제 왔는데. 주로

상담은 이제 회장님이 하고, 과거 상환여부나 돈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미리 상담하시고 운영위에서 이제 좀 더 보충해야 될 어떤 자료 이런 거를 보고 질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위가 사인 과반이 넘으면 이제 통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고.”

- 다람쥐회, 2022년 8월 19일 인터뷰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떤 심사 기준을 문서화 해놓진 않고요. (중략)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서로의 사정을 아니까. 그 사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쪽에서 만약에 요청을 천만 원 하더라도 천만 원 다 빌려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줄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대출 심사에도 상당히 좀 아마추어라기보다도 관계적으로 평판을 좀 보면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돈이 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해서. 대출 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요. (중략) 회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반적인 운영의 구조나, 심사 구조는 말씀하신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들은 총회에서 정관이나 네 어쨌든 임원 선출이나 이런 분들은 총회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실은 규약이라고 할까요. 내부 규약 같은 거는 저희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약간 큰 기준만 세우고 세세한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합니다. 큰 변수가 일어날 일은 없어서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긴급대출에 관한 대출심사는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500만 원 이상의 대출에 관해서는 실무진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유용하게 투자하자 팀’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 이후의 관계망 관리를 한다. 희년은행의 경우 대출자는 실무자, 그리고 전문 재무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친다. 이후 상담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출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때 전문 재무상담은 대출자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보다 공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도권 금융 등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에게 대출 심사는 자금 조달자를 평가하는 장이 아닌, 재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가 초기부터 재무상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중략) 모든 대출 희망하시는 분들 또 부채나 주거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상담부터 해야 그래서 필요하면 좀 부채 전문 상담사분하고도 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솔루션들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 프로그램 이용할 수도 있고,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알선도 해드리고. 그 옵션 중에 하나로 희년은행 대출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전 은행 대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시중은행에 문의해서 완전 거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문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중략) (금융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중은행에서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죠. 자격 조건 자체를 안 주죠 그런 분들 이야기조차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됐든 이런 그동안 공공기관이 됐든 이제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우리가 민간 단체라서 더 가능한 것일 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길이 아니면 만약 이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한 해법들을 같이 좀 모색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청년들은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없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돈 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당연히 안 빌려준다고 하죠. 문전 박대하고. 이미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이나 파산 절차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또 가면 또 아주 사무적으로 건조하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찾아봐 주고 이제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내몰리지 않도록.”

- 희년은행,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이와 같이 자금 조달자와 함께 고민하고, 길을 모색하려는 대안금융 공동체의 태도는 흔히 종래의 금융기관에서 ‘채권 추심’이라 부르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상환이 연체될 경우 대출자를 추심하기 보다는 상담과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간다고 한다. 예컨대,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에서는 24개월의 분할 상환 과정에서 3회 이상 연체가 일어날 경우, ‘같이 함께 고민하자 팀’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고 한다. 도토리회에서도 기한 내 상환을 강요하기보다는 대출자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질문: 그리고 아까 대출을 별도의 심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추천인 제도가 있어요. 추천인 제도 우리 은행 은행 회원들로부터 보증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증이라고 하는 건 좀 니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그런 건데.. (이와는 달리 모아에서는) 어찌 됐든 돈의 사용에 대출에 사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 같이 책임도 지고. (중략) 그래서 추천인 제도가 하나 있고. 저희가 유용하게 투자팀, 그리고 같이 함께 고민하자 팀. 유용하게 투자팀이 한마디로 대출 심사팀이에요. 200만 원 소규모 긴급 대출은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서류로만 하고 무조건 요건만 갖추면은 (대출을) 하고요. 500만 원 이상 하는 거는 저희가 유용하게 투자 팀에서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는 무슨 서류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출 신청한 이후, 관계망 그런 것들을 관리하죠. (중략)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저희가 대출에 대해서는 24개월 분할 상황을 원칙으로 해요. 그렇게 되면은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함께 고민하자 팀이) 상담을 저희가 하는 거죠. 3개월이 연체됐다는 거는 지금 수입 지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준다. 실제적으로 한 팀을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중국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500만 원 대출을 가졌는데 연체가 발생을 했어요. (중략) 그러면 이제 (대출자가) 지금 요즘에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는 거죠. 다 갚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출해준 건 수가 22건, 22건 중에 1건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질문: 그러면 대출에 대한 추심도 하시나요?) 예예. 일반적인 어떤 제도권에서 하는 그런 추심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상황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은 갖죠.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상황 계획을 가지시는지. 최근에 들어서는 계획서까지 좀 제출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는다 하지만 그게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연체라도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건 이제 약속을 좀 받긴 하고 웬만해서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약속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분들은 그냥 지금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이렇게 저희가 기다려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몇 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여기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대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연체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대출 평가를 진행하는 단체도 있다. 한살림연대기금은 생산자를 위한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제안, 활용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살림은 원물 및 동산담보 인정이 되지 않아 농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시도한다. 한살림은 현재의 금융기관과 제도가 생산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포괄 담보를 도입하여 생산자들의 신용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출심사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동산담보보다도 비전형자산담보가 많았기에 이를 반영할 대안적인 신용평가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건 다 인정해 주는데. 시설이나 설비 같은 거 지적 재산권은 담보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농작물 같이 가격 변동 심하고 유동성이 있는 이런 것은 은행들이 아직 (담보로 인정해주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담보로 잡는 게 매출, 채권, 그리고 동산담보, 원물. 그런 부분 다 포괄해서 일단 하고 있고. 원리는 처음에 인정금액이 예를 들면 원물만 많이 한 100이 있으면 원물이 줄어들고, 그게 매출로 팔리잖아요. 그걸 비율을 이제 점점 더 맞춰가지고 100으로 만기까지 가죠.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한살림의 ERP가 있으니까 매출이 다 잡혀요. 그거 보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원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만기까지 그거를 그냥 수익 가치로 보고 포괄 담보를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 한살림 연대기금, 2022년 8월 5일 인터뷰

한살림 연대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신용평가 방법론 구축방안」을 참고하여, 중층적·다중평가구조, 범용성, 공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우선 중층적·다중평가구조는 하나의 세부적 평가기준이 가지는 한계를 다중평가구조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다중평가의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보정신용정보’를 이용한다. 이는 차입대상자의 정보를 공동평가기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평가정보, 퀘백사회적경제기업의 적격성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자산건전성 평가기준으로 판별한 표준평가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범용성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통합적 신용평가로 보정하기 위해 통합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평가기준과 결합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신성은 최종 등급 판정을

할 때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확보된다.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신용등급분류체계(FLC: Forward Looking Criteria) 기준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공신성을 확보한다(박종찬, 2022년 7월 26일; 이인우, 2016).

“3가지인데. 하나는 다중 평가, 중층 평가. 하나의 심사 기준이 불완전하고 좀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번. 2중, 3중으로 기준을 두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하나의 심사 기준은 불확실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상호 좀 불확실한 것들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최종적으로는 등급화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계량 지표랑 비계량 지표가 있잖아요. 계량 지표는 워낙 재무적인 거는 다 비슷하니까. 비계량 지표들이 신용평가사나 사회적 기업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거를 결합하고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략) 그리고 하나는 공신성인데. 마지막으로 염두에 뒀어야 되는 최종적인 거는 그 등급의 판정 기준이 뭐냐. 그럼 금감원이 은행들한테 내려보내주는 금융 건전성 기준이 있어요. FLC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등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한다는 거죠. (중략) 대부분 보정이 되면 한 1, 2등급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신용평가사에서 7등급이라 해봤자 여기는 1년 내에 망할 확률이 7~10%.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틀린 거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정성 등급이 반영 안 됐으니까. 보정을 하게 되면은 망할 확률이 0%는 아니더라도 한 7~10%가 아니라 적어도 한 4~5% 이 정도로는 조금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의미성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 한살림 연대기금, 2022년 8월 5일 인터뷰

노동공제회 풀빵 또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제회와는 다른 공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공제회는 상조를 중심으로 공제 품목을 구성한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풀빵공제회의 특성상 기존의 공제 품목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공제 내용이 결정되었다. 결정까지 10번 정도 공제품목의 설계를 바꾸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사의 노동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실 설계하는 데 힘들었어요. 설계를 엄청. 한 10번 정도 뒤집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경조사가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돌아가시면 얼마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다. 결혼 안 하는데 무슨

결혼하면 돈이나 이런 거예요. (중략) 일반적으로 공제는 상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의 상조는 결혼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요한. 그런데 이제 우리 논의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이런 게 좋겠다.”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해빗투게더는 시민자산화를 통해 조성한 공간을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공간 사용료,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입주 단체에게 공간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독특하다. 사용료는 입주 단체의 월 수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일정액의 기본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수익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익과 적자를 모두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2층도 운영 구조가 좀 복잡해요. 우리가 여기 2층 (나무그늘 카페)에 현재 기대 수입을 한 250만 원 정도 잡았으면 125만 원은 임대료로 나무그늘 카페가 내요 일단은. 그다음에 절반은 수익 이거를 계산해요. 근데 실제로 250 수익이 나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 100만원 밖에 안났다면 50씩만 내는거죠. 대신, 400이 나오면 200을 내고. 즉, 장사가 되건 안되건 똑같이 내라고 임대인처럼 굴면 우리가 공간 만든 취지랑 다르니까. 수익도, 적자도 쉐어하자는건데. 복잡하죠. 정산도 막 복잡하게 해야 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 해빗투게더, 2022년 8월 4일 인터뷰

이렇듯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들은 기존 금융 구조를 차용하는 동시에 전유한다. 대안 금융 공동체들의 금융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존 금융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가치를 전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금융 관행을 창조하는 것이다.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비단 자금 조달과 신용의 흐름뿐만 아니라, 화폐의 흐름과 생산 및 소비 구조를 재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공동체 화폐를 활용한 실천을 통해 이를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홍성군 홍동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화폐 ‘잎’,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지역대안화폐 ‘모아’의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토리회는 ‘잎’이라는 지역 공동체 화폐를 통한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활성화를 시도한다. 도토리회는 홍성지역 화폐거래소를 설립하고 원화와 1:1 환전이 가능한 ‘잎’을 발행했다.

있는 흥동면의 약 5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흥성지역 화폐거래소, 신협,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1천만 원 정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고 한다. ‘잎’의 사용은 도토리회의 금융 생태계가 지역에서 확장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 도토리회는 귀촌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잎’의 이용 범위가 지역 안에서 확장되면서, 지역 선주민들 역시 도토리회의 대안적인 화폐 및 금융실험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도토리회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재활용품 나눔운동, 잎과 도토리회의 무이자 대출의 연계 등을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씩 좀 확장해가고 있죠. 여기 토박이, 선주민 분들도 잎에 대한 존재도 알고 이거는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환전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데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으시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저희 이제 마실 통신이라고 마을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마을 기자로 만약에 이렇게 글을 좀 보내시면 수고료. 원고료로 이걸 드려요. 이걸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뭐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뭔가?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경제적인 이 지역에. 뭐랄까요. 부를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식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농략) 지역 학생들이 여기 초등학교가 120명, 100여 명 되고. 중학교도 한 100명 돼요. 한 200여 명 되는데 5천 잎씩 다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존재도 알리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도 좀 했었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축제 때. 축제 때 이거를 써요. 선생님들이 아예 필요한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돈 쓸 때 이거를 전체 한 100만 원 정도 환전해서 거기에 그날 쓰는 돈은 다 지역 화폐를 쓰도록.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죠. (중략)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존재를 알리려고 하고 있고. 화폐에 대한 인식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약간은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조금 더 경제 쪽보다는. 그런 게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이 거래소나 도토리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긴 해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그림 5> 도토리회 지역화폐 잎



마포 경제 공동체 모아 또한 지역대안화폐 ‘모아’를 발행하며, 협약을 맺은 공동체 가게에서 모아를 사용할 수 있다 (마포 공동체경제 모아 홈페이지). 모아는 지역대안화폐의 발행과 순환을 통해 소비의 전환을 추구한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운동이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소비의 양상을 극복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기에 모아는 지역대안화폐를 발행하고, 공동체가게 네트워크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모아 발행액은 약 7억 9천만 원, 공동체가게는 170곳에 이른다 (마포 공동체경제 모아 홈페이지, 2022).

“예를 들면 좋은 협동조합 병원을 만들었어요. 생산의 일자리를 만든 거지만 그 협동조합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조합원분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해 줘야 되는. 그게 소비고, 이용이고, 인정이고, 관계 맺음이고. 그런데 우리 대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소위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중략)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소비할 거냐 이런

포커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좋은 소비를 해야 된다 능동적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으로 지역 화폐를 만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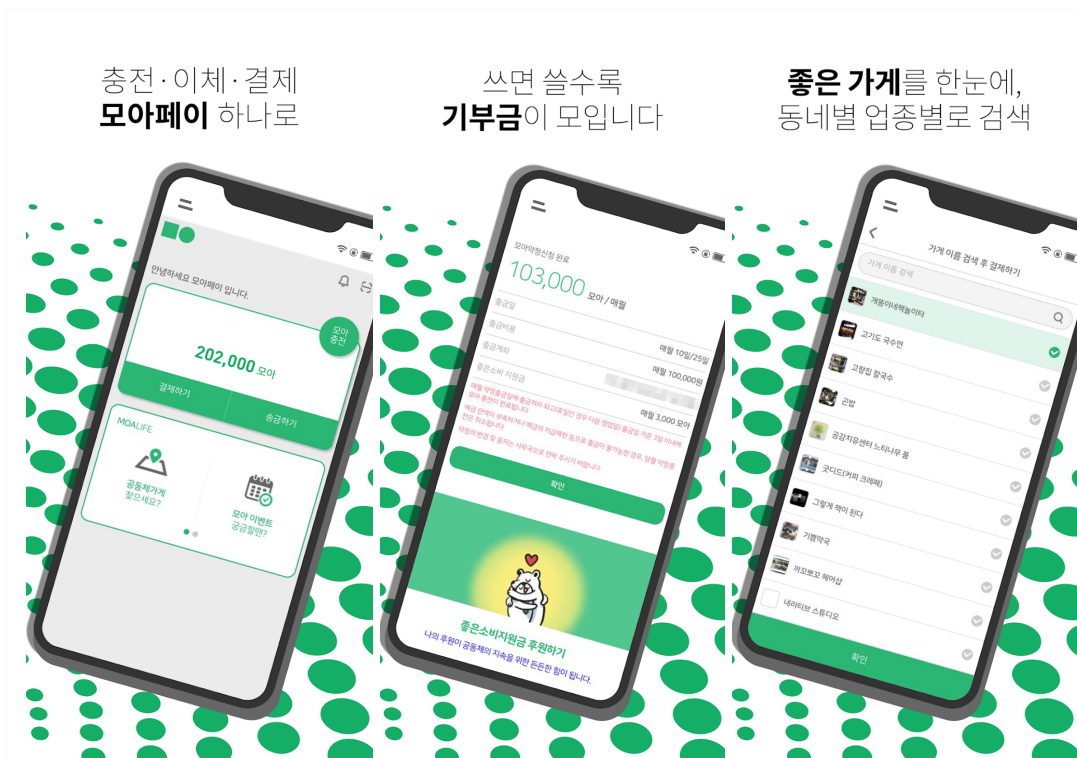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모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아 페이’를 개발하여, 운동의 규모화와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모아 페이 가입자 수는 600명 이상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약정 충전액이 한 달에 약 1,500만 원이라고 한다. 이는 모아 페이를 통한 모아의 약정 발행액이 한 달에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모아는 소비운동에서 나아가 생산, 금융, 커먼즈 운동으로 확장하여 공동체 경제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모아는 현재 지역에 함께 맥주를 생산 하고, 금융의 관계를 전환하며, 책장, 트럭, 오피스에 이르는 공유재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도전하고 어찌 됐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금융의 관계망, 소비의 관계망. 맥주를 만들고 맛있는 관계망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중략) 지금 공유 책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공유 트럭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은행도 사실 공유재이고. 모아 페이도 공유재예요. 우리 그리고 사람의 재능. 가게뿐만이 아니라 레슨 같은 것들, 사람의 재능 사람도 공유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공유재는 소비 운동, 생산 운동, 금융 운동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영역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경제가) 멈출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영역에서 확인을 했다고 봐야죠. 새로운 경제. 새로운 경제가 뭔데? 더 이상 자본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 의존한다거나, 우리의 관계망에 의존한다거나, 사람에 의존한다거나.. 그런 거에 의존해서 경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 필요성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그림 6> 모아페이 어플리케이션 안내문



충전·이체·결제
모아페이 하나로

쓰면 쓸수록
기부금이 모입니다

좋은 가게를 한눈에,
동네별 업종별로 검색

출처: 구글 플레이 모아페이 어플리케이션 안내 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oapay.app&pli=1>)

이처럼 대안금융 공동체는 자금 조달 과정, 화폐 및 재화의 흐름, 생산과 소비를 전유하는 실험을 전개하며, 그 과정에서 커먼즈를 형성하고 대안적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나간다. 무이자 대출, 이용자의 필요나 상황 등을 고려하는 대출 및 신용 평가, 이용자 특성을 이용한 공제 품목 구성, 지역 공동체 화폐의 활용 등을 통해 기존의 금융과는 상이한 금융 주체·논리·수단·관행·흐름 등을 형성해낸다. 커먼즈와 대안금융 생태계는 이처럼 다양한 실천이 켜켜이 쌓이고 교차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 <표 2>는 대안금융 공동체들의 이와 같은 실천들을 정리한 것이다.

< 표 2 > 대안금융 공동체의 실천

대안금융 공동체		대안금융 실천
커먼즈를 위한 금융	건맥1897 협동조합	지역자산화운동 중심의 거버넌스 형성 경험, 다양한 지원사업/금융기관을 활용한 커먼즈 조성의 경험
	공유성북 원탁회의	지역문화생태계와 시민자산화의 연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경험, 공공사업의 적극적 활용
	사람과 공간	민중의 집과의 연계, 공간 매개의 시민/노동운동의 촉진 경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해빗투게더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기관을 활용한 커먼즈 조성의 경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
	(사) 연구자의집	커먼즈와 금융의 결합 시도, 지식 및 공간 커먼즈 조성의 경험
커먼즈를 위한 금융 + 커먼즈로서의 금융	터무니 제작소	청년 주거공동체와 지역활동 결합, 신탁 소셜예금 활용, SH빈집매입사업과의 연계
	희년은행	무이자출자, 재무상담, 대출포인트 제도, 청년소액/긴급대출 및 주거대출 경험
	공동체은행 빈고	탈자본은행, 공동체금융, 금융수익 커머닝, 건강계/공통계/빈땅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실험
커먼즈로서의 금융	한살림연대기금	대안적인 신용평가 체계 개발, 소비자협동조합/농업생산자조직/금융전문가 기반, P2P업체와의 결합, 대부업등록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공제 프로그램의 운영, 노동공제회 간 전국연합조직 구축 및 운영의 경험
	도토리회	무이자출자, 지역화폐와의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경험, 면단위 지역기반의 금융실험
	다람쥐회	협동조합간 연합, 새로운 금융상품의 모색, 신용협동조합의 경험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소비자와 지역상점을 연결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경험,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지역공동체 은행
	주민협동 연합회	지역공제조합의 전국 연합회로서의 경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경험

2)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직 형태와 운영

대안금융 생태계는 비교적 유연한 운영·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한편으로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부딪히는 제도적 한계로부터 파생한다. 기존 금융체계의 배타성과 높은 진입장벽, 협동조합금융 규제와 같은 한계로 인해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법적 조직의 형태를 취해야 했다. 인터뷰와 집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는 상대적으로 등록 및 허가가 용이한 대부업 법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금융 공동체들은 금융제도와 체계에 대한 해석, 각자의 활동 영역과 지향점에 따라 법적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법적 조직의 형태는 경우에 따라 대안금융 공동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도 하였지만, 대안금융 단체들로 하여금 더욱 유연하게 대안금융 생태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안금융 공동체 중 상당 수가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공간 커먼즈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대부분은 협동조합을 조직 형태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방식과 크게 관련이 있다. 주식회사 등은 지분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한 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여러 금융 공동체들은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 형태로 채택하였다. 예컨대 건맥 1897 협동조합과 해빗투게더는 ‘일반 협동조합’, 주민협동연합회와 사람과 공간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⁴

“20만원 이상 출자하는 사람들이 몇백 몇천 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자산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거죠. 출자액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협동력을 끌어올려서 공간을 유지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지분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같은건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맞지 않다. 부동산을 사회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각자가 조합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고, 자본의 협동도 하지만 생각의 협동도 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정말로 지역의 공유공간, 모두의 놀이터가

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는 영리 추구 여부에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인가 방식이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신고 방식이다. 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산 시 비영리법인이나 국고에 잔여재산이 귀속되며,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이러한 차이와 특성은 각 대안금융 공동체가 법적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되는거 아닌가. 물론,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출자금을 더 많이 낼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만원이 넘지 않거든요. 20만원 이상이면 출자가 가능하고요. 돈이 없어도 출자할수 있도록. 단체건 개인이건 20만원. 누구나 조금만 있으면 참여할수 있고. 또 역으로는 누구 한명이 빠져도,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 해빗투게더, 2022년 8월 4일 인터뷰

그렇지만 협동조합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협동조합의 신용 등을 평가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빗투게더 또한 협동조합은 의사결정구조가 명징하지 않고 누가 책임질지도 불명확하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의 법인격 형태가 대체로 이런 협동조합의 방식, 조합의 방식, 조합적 소유 방식을 택하거나 비영리적인 법인의 구조를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일수록 금융권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중략)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이런 조합원 출자를 넘어서서 이렇게 조합원 우선 출자 제도 같은, 주식회사의 우선주 제도처럼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법도 개정을 했지만 잘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금융권에 갔을 때에 일단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임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 영역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인정되고 하는 것들 되게 필요한데 좀 아직은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고요.”

- 건맥 1897 협동조합, 2022년 7월 19일 인터뷰

더욱이 현행 협동조합 관련법이 협동조합의 금융 활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은 상당수 비인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비인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같은 거버넌스와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제도상의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발언 및 투표권을 갖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투표를 통해 선발된 운영위원 등이 일상의 금융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금융 공동체는 조직 형태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느끼는

동시에, 그 불안정성을 전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공동체은행 빈고는 자본, 국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저항하고, 이를 넘어선 자치의 의미로서 비인가 협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도토리회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는 조직 형태가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말한다.

“둘 다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 단체인데 저거는 다 저기 그 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고. 통장에 통장 명의가 단체 명의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래서 도토리회도 그렇고 홍성 지역 거래소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도 단체명으로 갖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거기서 사실 좀 더 나아가는 이제 법인격을 제대로 뭔가 가져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법적인 어떤 제약을 거의 덜 받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어쨌든 임의 단체는 정식 법인격이 아니라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도 하죠. 저희가 활동하기에는. 뭔가에 대신에 또 그만큼 공신력이랄까, 법인격을 안 갖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너무 약간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임의 단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더 이게 운영적 측면에서는 느슨할 수도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비인가 협동조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몇몇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다른 형태의 법적 조직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다람쥐회는 신용협동조합, 공제회, 상조회와 같은 여러 조직 형태를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과 공제회는 등록의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상조회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과 맞지 않았다고 한다. 희년은행 역시 금융 활동이 어느 정도 허가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의 형태로 고려하였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희년은행은 현재 최대한 내부 시스템과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도권 밖에서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추진할 것이라 이야기 한다.

“지금 이제 최소한의 법인격을 갖추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법인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소하게 연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법인격을 갖추게 됐을 때 좀 더 공신력이 생기니까 교회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같이 협력할 때도 그렇고,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더 주는 게 아닐까. 그전에는 그냥 이제 알음알음 네트워크 통해서 믿고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셨다면. 좀 접촉점이 없었던 교회나 기관이랑 같이 협력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우리 성의를 보이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곤란해 하시기도 하고 성격이 없는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그쪽 입장에서는 무모하다고 느껴요. 특히 돈을 다루기도 하고. (중략)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런데 제약이 많아서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액 대출 사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중략) 이제 공제 사업이든 아니면 상호 부조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틀을 찾는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법인격을 갖추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좀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들을 좀 단체 나름대로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중략)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저희는 이제 매뉴얼을 좀 가장 고도화할 수 있는 선까지 고도화하자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강 작업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초기부터 이제 이게 제도가 뒷받침되면 그 시스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우리 자체 매뉴얼, 그리고 감사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잘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좀 신뢰를 얻어가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약도 있잖아요.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도화 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 희년은행,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풀빵은 법리 해석에 기초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을 법적 조직의 형태로 결정하였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한 조직 형태이며, 동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관련 법에는 금융 및 공제 활동의 가능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영리가 아닌 사업이 가능하므로, 풀빵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수준의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의 형태로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가능하다 평가하였지만, 인력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공제를 해도 된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비영리 사업으로서 수익 사업, 그러니까 소액 대출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펼치면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거죠. (중략)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이자를 많이 챙겨서 그걸로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융 행위라고, 금융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사단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원형 여수신을 하고 있죠. 동행도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법상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저도 동행 조합원이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조합비를 5천 원씩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정관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현재 법에서 금융업을 인정해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큰 제약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이처럼 다수의 단체가 대안금융의 구조와 관행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살림 연대기금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갖고 여신과 수신을 하기에 용이한 대부업 주식회사를 조직 형태로 채택하였다. 2017년 한살림연합, 생산자연합회 등 24개 한살림조직이 출자하여 한살림펀딩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한살림펀딩(주)이 100% 출자하여 한살림대부금융(주)을 설립한 뒤, P2P연계대부업 주식회사로 등록했다 (생협법개정추진

위원회 외, 2020).⁵ ‘대부업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대부업 주식회사로 선뜻 등록하기에 어려웠지만, 대규모의 여·수신을 하기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설립 준비 당시 신용협동조합 인가 사례가 많지 않았고, 당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야 했기에 P2P연계대부업 주식회사의 형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큰 단위의 돈을 합법적으로 여수신을 하기 위해서 신탁을 인가를 받던가 재단을 활용해서 좀 하는 것도 있었고. 남은 한 가지 대안이 P2P라는 부분이었는데.. 신탁은 설립 인가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불투명했었어요. 당장 대출 자금 필요한데 P2P라도 빨리 해가지고 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한 자본금 3억 정도 있고 신청만 하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 승인을 해줬거든요.”

- 한살림 연대기금, 2022년 8월 5일 인터뷰

이처럼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그들의 금융 활동과 거버넌스를 담기에 적절한 법적 조직의 형태를 고민한다. 이 같은 고민은 대안금융의 제도화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대안금융 생태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의 밖에서 운용하였기에, 자본주의적 금융을 전유하는 새로운 금융 및 거버넌스의 구조를 창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지위 확보의 어려움은 대안금융 생태계의 확장과 운영에 여러 난관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금융 체계와 제도의 진입장벽은 점차 높아져,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터무니 제작소는 시민출자 소셜예금의 운영이 「금융소비자법」 제정 이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정말 제대로 일단 시민 자본에 의한 자조금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제 금융에 대한 제한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좀

⁵ P2P란 Person-to-person의 줄임말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일컫는 표현이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의 금융이다. P2P금융을 규제하는 법규는 2019년까지 부재하였으나, 그 규모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살림 연대기금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부분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되었으며, 사회적 금융을 표방하는 ‘임팩트투자 플랫폼 비플러스’에게 이관하는 중이라고 한다.

활로가 만만치 않다. (중략) 사실 이제 시민출자운동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유사 수신 행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탁하고 우리가 이제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 사고가 많이 나면서 「금융소비자법」이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기존 시장 금융에서 워낙 금융 사고가 많이 나서 소비자들 상대로 했던 예금 캠페인이나 유치가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히는 거야. (중략)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똑같이 은행에 라인을 정기 예금 가입하듯이 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여기 이제 이 돈을 넣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목적에 이제 쓰게끔 설명하고 약정을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도 못해 이걸 갖다 쓰는 것도 일일이 예금 가입자한테 동의서 이걸 다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략)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도 어쨌든 제도권 금융기관 그래도 신탁하고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다가, 결국은 지금 또 재단이 직접 출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중략) 재단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버거움이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현실에서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십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출자 운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많이.. 실제 지금 이제 금융 자체가 제도권 금융 중심으로 체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민사회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대안적인 시도를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공식화하고 뭔가를 좀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기존 법제도가 쉽지 않게끔 돼 있더라고요.”

- 터무니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대안금융 공동체는 제도화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의 구축 및 유지에 있어서도 여러 고민을 갖고 있었다. 운영 비용의 마련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대안금융 단체들은 비교적 적은 자본 규모로 운영되며, 대체로 자본수익 추구에 그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대안금융 공동체는 운영 비용의 마련을 위해 조합원 회비, 외부공모사업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나 생산자 대출 금융이 소비자 정기 예금보다 최고 금리 수준. 이걸 맞추려면 저희 마진이 다 줄어들어야 되는 구조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거죠.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거를 겨우 유지를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흑자긴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이 조금. (질문: 어디서 수익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출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외부 공모전.”

- 한살림 연대기금, 2022년 8월 5일 인터뷰

한살림 연대기금은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 자금의 일부를 조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당선 여부가 불확실하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공모사업과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이 잘 맞지 않을 경우, 대안금융 생태계의 운영 원리가 타협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외부의 지원을 받게될 경우 자립적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저희의 과제예요. 시민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혹은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민 주도의, 혹은 진보적인 어떤 역량에 기반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략) 지원 사업을 통한 것으로 많이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초기에 운영 원리를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조합원이라든가 그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모아는 자립적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운영 비용 마련의 어려움이 상근자 및 운영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대안금융 생태계는 대체로 상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대안금융 생태계의 구성원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하지만, 운영은 약 다섯 명이내의 상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아는 회비, 사업 수익, 기부금, 외부 지원사업 등

4-5개 정도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두 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상근자로는 현재 모아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토리회의 경우 실무진이 자원 활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연회비를 지금 받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연회비 수준에서 이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실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여기 조직이 회장, 대출 심사위원, 그리고 통화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회장 겸 실무를 맡았죠.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기본적인 회의라든가,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는 따로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회비로 약간의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이어져 온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아직 불안정한 측면도 있기는 하죠.”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이와 같은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규모 확장을 추진하는 대안금융 공동체도 존재한다. 희년은행은 소규모의 대안금융 생태계가 실험적인 시도에 적합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해 네트워크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규모를 넘어설 필요를 느낀다고 말한다. 터무늬 제작소 역시 커먼즈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규모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시민 출자금으로 한시적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주나 자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 출자 운동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또 이제 숙제가 있어요. 출자금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이지만 저희도 이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깐,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장성을 더 이제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체 내지는 침체기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기회들 이런 걸 좀 계속 찾는 게 지금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안정성도 크게 확보를 하면 아주 대중적인 운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한편, 근데 또 한계들이 분명하니깐 어떤 식으로 활로를 찾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문해 주시는 분들 운영위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주 소소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시도를 한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혁신이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규모를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규모화 단계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희년은행,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청년기에 이제 관계나 공동체를 경험을 하고, 그럼 본인들 고유 활동에 주거 안정이 나름대로 그 활동을 촉진하고, 단체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하는 모델이라고 보는데.. 사실 출자 운동을 하다보니까, 시민 자본으로 기금이 규모화되고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다음 단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기서 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 그러니까 터무니 1호 청년들 같은 경우 출자금 반환하고 이제 본인들 명의로 전환을 했지만, 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조금 관계에.. 뜻 맞는 친구들과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자산화 프로젝트 이제 이런 걸 한번 하는 꿈도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터무니 있는 집 시민 출자 기금이 잘 성장해서 기금이 순환되고, 규모화가 되고 했을 때.. 터무니 있는 집은 한때 한시적인 주거 지원이었다고 하면, 이런 기금들이 거기서 성장한 청년들이 정주나, 자산화를 도모할 때, 여기에 시민 자본이 좀 연계가 돼서 도움이 될 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시민 출자 운동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터무니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그렇지만 대안금융 생태계의 규모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여러 대안금융 생태계가 관계기반 금융에 기초하는 만큼, 규모화는 리스크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람쥐회는 신용협동조합 등록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지역화폐, 소비운동, 금융이 모두 관계망이므로, 대안금융 생태계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관계망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토리과 주민협동 연합회는 지역의 관계 기반 금융을 유지하며, 각 지역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이룰 경우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풀빵 또한 작은 단위 조직들의 규모 확대보다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형 구성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대안금융 생태계는 법적·제도적 공백 속에서 끝 없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 이는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동체의 운영과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대안금융 생태계들은 규모화를 도모하거나,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안전망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 살펴볼 대안금융 생태계의 관계 맺기는 조직 형태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4·5장의 논의에서는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생태계에 내재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시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04 | 대안금융 생태계의 관계 맺기

대안금융 생태계는 종래의 금융 체계 및 제도, 해당 금융 생태계가 자리한 지역 및 공동체, 그리고 다른 대안금융 생태계와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제4장은 대안금융 생태계가 상호구성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확장되는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안금융 실험과 공동체는 기존 금융 체계 및 제도를 활용하여 커먼즈와 대안금융 생태계를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단체들의 금융 실험에서는 단순히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금융 관행과 상품을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임팩트투자 플랫폼 비플러스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 기금의 일부를 마련하였다. 이때, 사회혁신 모태 펀드 운용기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비플러스와의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추가로 자금을 대출하는 매칭펀드 상품을 새로이 만들었다고 한다.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사례는 커먼즈의 형성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관계 맺기가 자금 조달의 구조와 자본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지역상생 시민펀딩’이라는 사회공헌 기금 프로그램으로 비플러스에 건맥 협동조합이 납부해야 할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공간 커먼즈 조성의 과정에서 커머들과 제도권 금융기관이 더욱 대안적인 형태로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임팩트 투자를 이제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중략)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또 보상을 해드려야 해요. 보통 중금리의 한 7~8% 정도의 이자를 매달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죠. 보통 7~8% 정도면 6천만 원이라고 가늠이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것도 새마을금고에서 비플러스와 협약을 맺어서 지역상생 시민펀딩이라고 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운용하던 게 있었어요. 새마을금고가 비플러스 프로젝트 중에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희의 프로젝트가 새마을금고에서 봤을 때 되게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셔서 그 6천만 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략)

여기까지가 비플러스의 스토리였고요, 그 사이에 잔금은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고 하는 사회혁신 모태펀드 운용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저희처럼 지역 자산화를 시도하는 그룹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하시면서, 소셜 펀딩 기관을 하나의 중계 기관으로 인식해서 펀딩이 성공하면 그 펀딩에 매칭해서 기금을 주는 방식의 상품을 새로 기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플러스에서 6천만 원을 달성하니까 연대 기금에서 두 배인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모은 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비플러스의 펀딩, 사회 가치 연대 기금의 매칭 대출을 통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자금이 아주 조금 남아서 1층이라도 인테리어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지역자산화 같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사회연대기금의 매칭 펀드는 좀 드문 케이스예요. 시민들의 펀딩을 담보로 추가로 자금을 매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화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이나 물건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이 대출해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 또는 시민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에 기관이 함께 매칭해주는 거죠. 지역 자산화 같은 프로젝트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성화되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건맥 1897 협동조합, 2022년 7월 19일 인터뷰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는 정책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공유성북, 건맥 1897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터무늬 제작소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의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금융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 또한 정책 금융, 공공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금융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한 경우가 많으며, 생태계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풀빵과 한살림연대기금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마련하였다. 풀빵은 2021년 1월에 창립총회를 한 약 1년이 넘는 조직인만큼, 아직 자생력 없다는 판단 하에 외부 자원 공모 사업과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살림 연대기금 또한 현재의 금융 구조를 통해서는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다. 차후 수익 모델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공모 사업을 큰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 풀빵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작년 1월 달에 창립총회하고 4월 달에 인가 받고 실제 사업은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과 1년 넘는 조직이라 아직 자생력은 없습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은 외부 자원 공모 사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사업을 펼쳐야 되니까 공모 사업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 이런 사회 공헌 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연명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마중물로서 규모화시키기 위한 단계로 1, 2, 3년차까지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쌓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공공재원은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만, 대안금융 생태계들 역시 공공기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관행을 바꾸어간다. 터무늬 제작소의 ‘터무늬 있는 SH 희망 아지트’ 사업은 SH 공사의 빈집 매입·재생사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사업에서는 SH의 다른 임대주택 사업과는 다른 입주자 선정 과정을 도입하였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입주자의 소득이다. 이에 반해 터무늬 제작소는 입주자의 ‘소득분위를 보지 말 것’,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모집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SH는 이를 받아들였다. 터무늬 제작소가 이와 같은 입주자

선정 원칙을 내건 이유는,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터무니 제작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입주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리고,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개인이 아닌 단체에 기초한 지역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21).

“SH 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였죠. 소득분위 조사하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모집하는 거다. 우리한테는 그게 두 개가 가장 중요했고, SH가 그걸 수용했고 해서 이렇게 협업 사이 된 거지요. (중략) 그냥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적합한 단체라고 하면 입주자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랑 같이 터무니는 희망아지트 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지키려 했죠. SH나 이런 공공에서 하는 청년주택 같은 데 중에 아마 소득 심사가 없는 주택은 아마 저희 서울 희망아지트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 터무니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이렇듯 터무니 제작소는 SH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체 공간을 조성 및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SH 공사가 새로운 입주자 선정 방식과 주거 공동체를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대안금융 생태계와 공공기관의 관계맺기는 기존의 관습·논리·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터무니 제작소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북서울 신용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새로운 금융 상품인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출시하였다. 이는 대안금융 생태계와 제도권 금융 간 관계맺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금융 체계와 관계 맺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풀빵은 기존 금융 체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기에 호흡을 길게 가지고 자체적인 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풀빵은 기존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이후 다른 공동체들에게 인내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운동 지역에서도 계속 바깥의 금융기관을 흔들어서 돈을 조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지만 이 돈을 쌓는, 조합원들 스스로 돈을 쌓게 하는 작업들을. (중략) 단기적 시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호흡을 좀 길게 놓고, 4, 5년 호흡을 놓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저도 이제 이걸 풀빵에 들어왔을 때 10년 정도. 아까 제가 상징적으로 10년에 1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공제회는 그 호흡이 없으면은 조성되기가 어려운 거죠. 단기적으로 1년,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꼭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그 돈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럼 인내할 것이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풀빵의 역할은 그 인내 자본을 일단 조성하고 인내하게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하는 거겠죠.”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그림 7> 터무니 있는 소셜예금 상품 안내서

The image displays two documents related to 'Themuni' social savings deposits. On the left is a 'Social Savings Deposit Application Form' (소셜예금 참여신청서)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and a section for selecting deposit terms and interest rates. On the right is a 'Social Savings Deposit Product Introduction' (소셜예금에 동참해 주신분들께 전하는 작지만 특별한 보답) flyer. The flyer lists key features: deposit amount (100,000 to 200,000 KRW), term (3 to 5 years), interest rate (0.5% to 1%), and a 'Social Savings Deposit' (소셜예금) feature. It also mentions a 'Social Savings Deposit' (소셜예금) and a 'Social Savings Deposit' (소셜예금) feature. The flye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muni and the Social Savings Deposit (소셜예금) feature.

출처: 터무니있는 집 홈페이지 (<https://themuni.co.kr>)

그러나 북서울 신용협동조합과 터무니 제작소의 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금융 제도 상의 한계로 인해 다수의 대안금융 생태계는 제도권 금융 바깥에 위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권 금융 중심의 행정 및 법 구조는 대안금융 생태계와 금융기관의

협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금융 제도는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에 상당한 양의 행정적인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시민이 소셜 예금에 가입하고, 해당 예금을 청년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으로 만나 서류 처리를 해야 했다. 게다가 금융 규제 강화는 터무니 제작소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었다. 금융권의 사고가 증가하여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소셜 예금의 홍보와 예금자 유치 캠페인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더욱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금융 사고가 많이 나면서 금융소비자 법 이게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기존 시장 금융에서 워낙 금융 사고가 많이 나서 소비자들 상대로 이렇게 했던 예금 캠페인이나 유치가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건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은행에 라인을 정기 예금 가입하듯이 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여기 이제 이 돈을 넣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목적에 이제 쓰게끔 설명하고 약정을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도 못해 이걸 갖다 쓰는 것도 일일이 예금 가입자한테 동의서 이걸 다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략)

소셜 예금을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행에 요즘에 앱으로 하듯이 편하게 예금 가입하면 누구나 출자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걸 갖다가 보증금으로 쓸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략) 이게 안정성을 되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100만 원을 출자를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대출 받는 형태인데, 하려면 서류가 이만큼을 준비해야 돼요. 예금 가입하는데요. 그리고 무조건 대면해서 서명을 받아요. 이러면 신용 담당자가 그 사람이 전국 어디에 있든 무조건 만나야 돼. 일단 만나서 서명 받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신협에 계좌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돈을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 물건에 대한 걸 담보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 입주한다 그러면 담보와 관련해서도 서류 이만큼 준비해요. 그걸 신협에 내요. 그러면 두 개가 질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금은 여기에 담보물로 해서 들어갑니다. (중략) 누가 한 5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지만 100만 원 출자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중략) 사실상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신협 쪽에서도 그거 한 번 한 명 가입자 받으면, 하루를 그냥 통으로 한 명 직원이 시간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라 서로 부담이 되죠.”

- 터무니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도토리회 또한 기존 금융 체계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확장을 시도했다. 도토리회는 지역 화폐 ‘잎’의 유통과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흥동면의 농협 및 신협과 가맹을 맺었다. 가맹을 통해 농협과 신협에서 ‘잎’과 원화와의 환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경제사업장에서도 ‘잎’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러한 연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낯선 지역 화폐와의 연대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토리회는 흥동면 농촌 경제의 중심에 농협과 신협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부단히 노력하여 신협 · 농협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도토리회는 농협과 신협이 환전 기능을 넘어 ‘잎’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잎’의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금융기관이다보니까 되게 민감한가 봐요. 이거 지역화폐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농협 중앙회에서) 문의가 왔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조합장도 그렇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여기서 이제 어떤 책임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장치를 걸어놓고 하는 거죠. (중략) 농협으로서는 손해가 아니거든. 환전을 해주는데, 받아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손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농협에서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한편 도토리회의 사례는 지역화폐를 두고 대안금융 생태계와 지방정부 사이의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잎’의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이용자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지폐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잎’이 아닌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였다. 이렇듯 대안금융 생태계의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져갈지는 도토리회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⁶ ‘잎’은 화폐 및 금융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목표인 지자체 발행 지역 화폐와 다른 결을 가진다. 따라서 도토리회는 대안금융 생태계와 지자체의 지역화폐가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⁶ 이동근, 2021년 4월 5일, 홍성군 흥동면의 민간주도 지역화폐운동의 의의, 민위방본, 81, 1-10.

“지역 화폐 오히려 도토리회는 아까 말씀드린 화폐 금융의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폐 제도를 바꾸기 위한 일종의 어떤 인식 전환을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면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은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가맹점을 선정할 때도 되게 다르죠. (중략) 만약에 하게 되면 (중략) 양보할 건 양보해서 한번 홍성군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 단위로는 이게 참 피부로 체감하기가 어려워서.”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이처럼 대안금융 생태계와 금융 체계 및 제도와의 관계 맺기는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대안금융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이 동력이 되며, 동시에 기존 금융 제도 · 관행 · 주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금융 생태계와 제도권 금융 주체 간의 연대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대안금융 생태계들이 제도권 금융 밖에 자리하는 만큼 현행 행정 및 법 체계는 대안금융 생태계와 제도권 금융 사이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실천과 충돌하기도 한다.

2. 지역과 관계 맺기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지역의 여러 행위자와 관계 맺으며 대안금융 생태계를 지역에 뿌리내려 간다. 지역운동에서 출발한 다람쥐회, 도토리회,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특히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와 연대하며, 관계망을 구축해나가는 방식으로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였다. 사람과 공간과 같은 대안적인 금융 실천을 통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 단체들 또한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망을 형성해나갔다.

다람쥐회는 1958년 영등포 경공업단지에 설립된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의 하위 공동체로 시작하였고, 현재도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람쥐회의

노숙인 및 보조출연자 지원 금융 사업은 다람쥐회가 영등포라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햇살보금자리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를 운영한다. 이에 다람쥐회는 드롭인센터의 노숙인이 자립을 위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을 만들었다. 더불어 SH·LH와의 연계하여, 본 상품의 예금자가 희망할 경우 다람쥐회에 저축한 금액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출연자 융자사업 역시 방송국과 인접한 영등포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다.

동시에 지역 공동체들도 다람쥐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확장된 실천을 할 수 있었다. 본래 드롭인센터 자체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하기 어려웠으나, 다람쥐회와의 연대를 통해 금융을 활용한 실천을 할 수 있게된 것이다. 대안금융 생태계는 지역의 다른 공동체 및 생태계와 연대하며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간다.

“드롭인센터라고 햇살보금자리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여기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활동가가 돈을 어디에 모아두고 이럴 수는 없는거야.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회적으로 다람쥐회에 이제 모아두고 이제 거기 활동가가 “이분 얼마큼 모았나요.” 그러면 “이 정도 모았습니다.” 하면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고.”

- 다람쥐회, 2022년 8월 19일 인터뷰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와 도토리회는 지역의 상업 생태계와 관계 맺으며 대안금융 생태계를 구성해간다.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약 170곳의 공동체가게와 연대하고 있다. 공동체가게에서는 협약을 맺고 공동체화폐 ‘모아’를 받는다. 도토리회 또한 홍동면의 거의 모든 가게에서 지역화폐 ‘잎’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재환, 2019년 4월 19일). 지역화폐와 상업 생태계와의 관계 맺음은 지역 내의 거래량을 늘려, 상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게다가 상업 생태계와의 연대는 대안금융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도토리회의 운영과 지역화폐 ‘잎’의 발행은 홍동면의 선주민이 아닌, 새로이 귀촌한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지역의 상점들에서 ‘잎’을 사용하게 되면서 선주민들 또한 지역 화폐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더불어 도토리회는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학교 축제에서 ‘잎’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와 지역화폐 운동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조금씩 좀 확장해가고 있죠. 여기 토박이, 선주민 분들도 앞에 대한 존재도 알고 이거는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환전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으시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저희 이제 마실 통신이라고 마을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마을 기자로 만약에 이렇게 글을 좀 보내시면 수고료. 원고료로 이걸 드려요. 이걸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뭐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뭔가?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거고.”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대안 금융을 활용하여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 사람과 공간 또한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사람과 공간은 전략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많은 강서·양천 지역을 터전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강서·양천에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을 선택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간 조성 이후 강서·양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한 예로, 사람과 공간은 지역의 노동 쟁의에 연대하기도 했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과 단식 투쟁에 연대 방문을 하고 투쟁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9호선 청소 노동자 복직 투쟁을 주도하였다. 동시에 사람과 공간은 노동조합과 주민을 잇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김장 나눔 행사, 건강 진단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나상윤 외, 2019).

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대안금융 생태계, 노동 생태계, 생활 생태계 등이 교차하고 접합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안금융 생태계를 통해 공동체 공간이 조성되었고, 해당 공간은 노동 생태계와 생활 생태계가 교차되는 장이 되었다. 이처럼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지역의 복지·상업·생활 생태계 등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와 관계맺으며 지역에 뿌리 내려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은 생태계의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금융체계 및 제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와 상호 관계를 맺으며 더 넓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공동체들은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공동체 은행 빈고의 경우 모아, 다람쥐회, 도토리회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빈고는 대안금융 생태계 조성 초기에 다람쥐회의 경험과 모델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최근 빈고는 도토리회에 대한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토리회의 재정업무 시스템은 빈고의 시스템과 유사하다. 희년 은행과 터무니 제작소도 청년, 주택, 대안금융과 같은 공통의 주제를 공유하기에, 자주 대안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고 하다.

공동체 주택을 조성한 단체들 역시 금융 실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해빛투게더는 건맥 1897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과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이들 공동체는 임팩트 투자 플랫폼인 비플러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안적인 금융 생태계가 커먼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비플러스는 한살림 연대기금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살림 연대기금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부분을 비플러스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안금융 생태계 간의 연대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다람쥐회의 사례는 대안금융 생태계 간 자본 공유의 사례와 그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람쥐회는 대학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는 무지개신용협동조합에 큰 규모로 자금을 제공했다. 무지개 신용협동조합은 대학 생활협동조합과 관련 활동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창설을 시도했으나, 대학 생활협동조합에서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금의 흐름은 무지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로 이어졌다. 결국 무지개 신용협동조합은 다람쥐회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채 해산하였으며, 무지개 신용협동조합의 관계자 개인이 이를 계속 갚아 나가고 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다람쥐회는 대안금융 공동체들 간의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은행이랑 돈 서로 빌려주고 이래야 되잖아 원래는. 은행들이 하는 게 그런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됐어. (중략) 충분히 알고 우리가 뭔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약간 몸에 박힌 거지. 이제 좀 어설픈 활동 이거 합시다 이런 거로는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뭘 서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와야지만 같이 뭔가 얘기를 하는...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이랑 할 때도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도 되게 꼼꼼하게 좀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분들의 그것을 어떻게 납부할 거냐.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고 어떤 역할을 계속 해왔냐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좀 확인하고 했죠.”

- 다람쥐회, 2022년 8월 19일 인터뷰

이 같은 사례는 대안금융 공동체 간 자본을 공유하는 실천이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금융 생태계 간 자본 공유는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위험을 직접 대비하고,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금융 생태계 간의 자본 공유와 기금 연대의 중요성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이야기 된 바 있다. 도토리회의 이사는 각 지역의 대안금융 생태계 간의 자본을 연결하여, 서로를 지탱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규모의 리스크와도 관련된다. 대안금융 생태계가 관계 금융에 기초하는 만큼,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동시에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하여 큰 자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하며,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된다. 이에 개별 공동체들은 소규모로 존재하되, 각 조직들을 잇는 네트워크가 안정망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관계 금융이 좀 약화가 되고. (중략) 도토리의 규모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로. 자율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금융 조직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로 그냥 뭉뚱그러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가 느슨해지잖아요. 어떤 지역은 푹푹 뭉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근데 여기로서는 많이 부족하니 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이 서로 지탱해 주는 방식.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출 사고같은 것들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있는 돈 주머니를 같이 잘 연결하자는 거죠. (중략)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 천만 원은 우리 공동 주머니에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당장 돈이 없을 때 이쪽에 있는 기금을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중략) 이런 공동 주머니가 안전망?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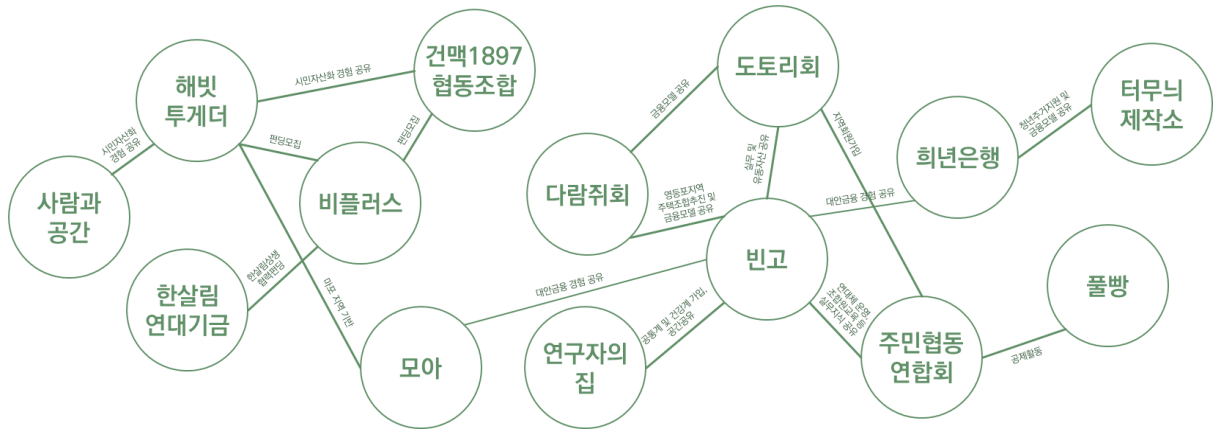
풀빵과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이와 같은 연대체를 지향하는 ‘조직들의 조직’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풀빵은 작은 조직들을 묶어내서 네트워크형의 구성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5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조직으로 확대되면 관계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단위 조직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체가 필요하다. 풀빵에 따르면, 기존에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연대체의 역할을 해왔으나 점포를 통폐합시키고 한 조직을 규모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관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풀빵은 ‘조직들의 조직’ 형태로 네트워크형 조직이 되고자 한다. 풀빵은 전국 약 43개 주민협동회가 참여하는 연합 조직이며, 풀빵과 유사하게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호부조 공제 사업과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주민협동연합회와도 연대하고 있다.

“한 집단이 관계성이 확인될 정도 수준의 최대치가 한 4~500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관계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한 3~500명 정도 되는 이 사이즈의 여러 단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그럴 역량들은 좀 부족한 거죠. 왜냐면 본인들 거 하기 바쁘니까. (중략) 그 모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모델들이 확장되게 만드는 작업들은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 조직들이 커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조직들의 확대. (중략) 이렇게 네트워크형의 구성을 짜게 하는 게 저의 최근에 결론이거든요. 작은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다만 그 작은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묶어내는 연대체를, 네트워크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네트워크 조직에 기능과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러면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이처럼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17일에 열린 ‘금융 커먼즈 집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집담회에서도 네트워킹에 대한 대안금융 공동체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대안금융 생태계들은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넘어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8> 대안금융 공동체 간 관계 맺기



05 | 금융 커먼즈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자본주의적 금융의 논리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며, 대안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나간다. 하지만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성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며, 이는 대안금융 생태계의 유지와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5장에서는 인터뷰와 집담회에 참여한 대안금융 생태계들의 가능성과 고민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금융 커먼즈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안금융 생태계의 가능성

대안금융 생태계는 시민운동, 지역운동, 커먼즈 운동에 뿌리를 두고, 대안적인 금융 주체 · 논리 · 수단 · 관행에 기초하여 형성 및 확장되었다. 대안금융 생태계의 특징과 이로부터 찾을 수 있는 금융 커먼즈의 가능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금융 생태계는 다양한 운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대안금융 생태계의 지향점과 금융 및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지역과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단체들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때 금융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운동의 지향에 따라 상이한 자금 조달 방식이 활용되며, 그 과정 속에서 공간 · 관계 · 자본 · 금융의 의미는 전유 및 재구성된다. 이렇듯 공간 커먼즈의 조성 과정에서 대안적인 금융 실천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주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대안적인 금융 공동체들도 금융 실천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생태계에 기초한 시민운동 및 지역운동을 전개해나간다. 또한 대안적인 금융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새로운 운동과 실천이 파생되기도 한다. 더불어 공간 커먼즈를 위해 새로운 금융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금융 운동이 공간 커먼즈의 조성 과정으로 확장되고, 공간 커먼즈의 조성이 자본의 커머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종합하면 대안금융 생태계와 시민운동, 지역운동, 커먼즈 운동의 생태계는 긴밀히 얽혀 서로를 구성하고 확장해나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금융은 접점을

찾기 힘든 것처럼 보였으나, 이와 같은 양상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대안금융 생태계는 새로운 금융 주체 · 논리 · 수단 · 관행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대안금융 생태계는 상당 부분 기존의 자본주의적 금융의 구조를 모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생해나간다. 여신과 수신 등 큰 틀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대출의 원칙, 신용 평가, 화폐의 역할 등을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무이자 및 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대출을 진행하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이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대안금융 생태계는 기존 금융체계 및 제도와 상호구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즉, ‘자본주의적 금융-대안적인 금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 자본주의적 금융 구조를 모방 및 전유하고, 이와 관계 맺음으로써 금융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셈이다. 이는 대안금융 생태계가 일상생활을 통해 구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존 금융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대안금융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대안금융 생태계는 기존 금융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더욱 넓은 일상 속의 금융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을 변화시킬 가능성 또한 담지하고 있다.

셋째, 대안금융 생태계는 제도권 금융, 지역, 다른 대안금융 생태계와 관계를 맺어가며, 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금융 구조와 관행은 굴절 및 확장된다. 예컨대 대안금융 생태계들은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며,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금융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더불어 대안금융 생태계 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나아가 최근에는 운영 및 금융과 같은 부분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 역시 나타나기도 한다.

2. 대안금융 생태계의 한계 및 극복 방안

대안금융 생태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담지하나, 그 실천의 과정에는 다양한 고민 지점이 존재한다. 대안금융 생태계가 마주한 어려움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대안금융 생태계는 제도화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비영리 사단법인,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대부업체 등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형태를 띠고 활동하였다. 이는 금융 제도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영·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대안금융 생태계의 확장 및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도화 및 규모화는 여러 리스크를 동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제도화로 인해 대안금융 생태계의 저항정 정체성, 운영원칙, 유연성,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이들 단체들이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안금융 생태계 전반이 관계 기반 금융에 기초하는 만큼, 규모화는 생태의 가치와 충돌하거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한 공동체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화폐와 신용이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대안금융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꼭 이게 20억이 될 필요가 없어요. 2억이 잘 돌면 되거든요. 20억 있어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그런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1년 2년 꽤 장기간 빌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순환한다고 하면 2억 갖고도 될 수 있는데. 굳이 20억이 필요하냐는 거지. 오히려 그걸 더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커먼즈로서 어쨌든 조금 더 생각 한다면 이런 작은 금융, 관계 금융들이 같이 이렇게 좀 공통으로 이렇게 연대하는 이런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해외 금융커먼즈의 사례에서도 제도화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난다. 일본 도쿄 미래뱅크는 대부업체로 등록하여 여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수신 업무를 하지 않고 대부업체의 형태를 택한 이유는 예금 취급 기관이 될 시 일본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인내심 있는 자본 (patient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지자체가 리스크를 공유한다. 공식 신용보증 등을 활용하여 용자에 대해 일정비율 까지 손실을 보전한다 (가톨릭프레스, 2020년 10월 16일).

이탈리아 방카 에티카, 독일의 GLS 협동조합 등은 법적으로 은행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다. 방카 에티카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을 인정받았으며, GLS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 동시에 은행으로서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해당 단체들은 은행의 자격을 인정받아 일반 은행 업무를 진행하며 규모화와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또는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과 같이 제도와 관계 맺는 동시에 이를 전유하기도 한다. 노스다코타 은행은 지역 내 상업 은행과 협력하며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상업 주인을 지역 주민으로 바뀌어나가고자 시도한다. 이는 제도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이와 동일시되지도 않으면서 대안 금융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다.

국내외의 대안금융 생태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화, 나아가 규모화의 문제는 단순히 ‘대안금융단체들을 포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각 대안금융단체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각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제도 안에 속하기도 하고, 이를 넘나들기도 하며, 관계 맺어 나가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실천을 해 나간다. 이에 대안금융 생태계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한 연결과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안금융 생태계 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법적·제도적 지위 확보의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되기도 한다. 법적·제도적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기에 금융 활동과 제도권 금융기관의 투·용자가 제한되는 문제에 봉착하곤 한다. 더불어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안적 금융 실천에 중점을 둔 만큼 많은 대안금융 공동체들은 운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각 대안금융 공동체는 조합원 회비, 외부공모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 금융 커먼즈들은 금융 구조를 전환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맹 연대경제금고는 1990년대 초 전까지 노동자 대출 등을 주로 하는 지원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투자까지 전개하고 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또한 이전에 개별 협동조합들의 자금원 역할을 하는 지원 조직이었다면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출보다 수익 중심의 소매금융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대안금융 생태계는 거시 금융 환경의 변화, 금융 주체의 부재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를 해결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말 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다람쥐회는 현재 영등포 지역의 공장 감소로 인한 금융 주체의 부재에 직면하고 있다. 다람쥐회는 지역 운동에서 출발한 대안금융 생태계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자 의료 생활협동조합, 방송 보조출연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활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도권 금융 포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운동의 당사자를 찾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한다. 다람쥐회는 금융 운동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금융 생태계의 정체성과 운영 구조가 결정되며, 그렇기에 금융 운동의 당사자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대안금융 생태계의 유지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야기 한다.

“노동자들을 위해 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위에 노동자들도 없고. (중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람쥐회가 고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융으로 계속할 거냐. (중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이제 약간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중략)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새로운 그런 틈새를 아직 잘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출연 노동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중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깊죠. 예전에는 은행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은행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엄청 인터넷 은행도 생기는 와중에 계속해서 어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어떤 이익을 이야기하더라도 최소한 그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들을 이제 좀 못 찾고 있는.”

- 다람쥐회, 2022년 8월 19일 인터뷰

거시 금융 환경의 변화는 대안 금융 생태계가 적응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10여년 간 지속되어왔지만, 다가올 금리 상승은 커먼즈 조성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단체들과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구조를 구축한 금융 공동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한살림 연대기금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현재의 금융 구조가 깨질 우려를 하고 있으며, 터무니 제작소 역시 무이자에 가까웠던 시민출자 소셜예금을 지속할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근데 지금 고민은 금리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 지금 생산지 대출 금리도 5.5% 막 이런 거예요. 예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4% 막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초저금리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1~2년 사이에 막 5% 이렇게 되니까 금리 변동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금리가 너무 올랐는데 금리 역전이 일어난 거죠. 저희 1금융권보다 낮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보다 1금융권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마지노선을 5%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예대마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여 금리가 있잖아요. 조합원님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금전 대여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예금리도 확 올라갔잖아요. 거의 3% 이상, 4%까지 나오니까 그걸 다 받아가면서 예대 마진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죠.”

- 한살림 연대기금, 2022년 8월 5일 인터뷰

“이자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소셜예금은 실제 1%까지 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걸 1%까지 열어놨는데, 거의 한 80~90% 정도는 대부분 다 무이자로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이자 때문에 출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냐, 실제로는 그래서 이자를 올린다는 것보다는 무이자 출자라는 거의 가치를 좀 더 오히려 잘 다듬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홍보하는 게 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입장이 사실 다 있고요. 이자 오르는 것도 사실 최근 일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은. 그래서 저희 기존에 출자해 주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자가 더 높은 이자가 있으면 더 출자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아까 말했던 터무니 있는 집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죠.”

- 터무니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이처럼 대안금융 생태계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다른 대안금융 공동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상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안금융 생태계의 가능성과 한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안금융 생태계가 운동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에서 형성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계는 새로운 실천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안금융 생태계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 금융 체계, 제도, 지역 및 다른 대안금융 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망이 생겨나고, 관계로 빚어진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공동체은행 빈고 홈페이지. <https://bingobank.org/> (최종접속일: 2022.12.10)
- 공유성복원탁회의. (2020). *문화와 예술, 마을을 만나다*. 민들레.
- 관계부처합동. (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17-4.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서향교회·온누리교회·사회선교부경제정의팀·예수마을교회·희년함께. (2018년 11월 22일). *청년부채해방, 현실 속에서 희년의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
- 김용재. (202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제언 - 미국의 North Dakota 은행을 모델로 하여 -. *경영법률*, 31(1), 235-267.
- 김현대. (2012년 8월 16일). 퀘벡인구 70%가 조합원...세계서 가장 안전한 은행 20위. *한겨레*. 2022년 10월 3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7445.html
- 김현대. (2019년 8월 26일). 제2의 노스다코타은행 나올까. *한겨레/21*. 2022년 9월 28일 검색,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514.html
- 나상윤 외. (2019). *로컬의 오늘*. 이매진.
- 문진수. (2013).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로 본 신탁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탁연구*, 61.
- 문진수. (2021년 7월 1일). 내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다면? *한겨레*. 2022년 10월 1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1739.html
- 미래뱅크 홈페이지. <https://mirai-bank.org/> (최종접속일: 2022.12.10)
- 민병길·이상민. (2015).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정책연구*, 2015-38, 1-95.
- 박요셉. (2016년 10월 27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은행. *뉴스앤조이*. 2022년 10월 1일 검색,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34>

- 박종찬. (2022년 7월 26일). [기후금융시리즈] ⑤ 한살림 대안신용평가 적용사례로 본 금융포용의 대안적 방안 모색. *생태적 지혜*. 2022년 8월 5일 검색, <https://ecosophialab.com/%ED%95%9C%EC%82%B4%EB%A6%BC-%EB%8C%80%EC%95%88%EC%8B%A0%EC%9A%A9%ED%8F%89%EA%B0%80-%EC%A0%81%EC%9A%A9%EC%82%AC%EB%A1%80%EB%A1%9C-%EB%B3%B8-%EA%B8%88%EC%9C%B5%ED%8F%AC%EC%9A%A9%EC%9D%98-%EB%8C%80/>
- 블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 사회연대신탁 홈페이지. <http://ksencu.ksifinance.com/>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Youtube 채널. (2021년 6월 24일). 시민자산화 동영상1 부동산 이전에 공간의 진정한 의미를 묻습니다. 2022년 9월 5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5SEZRpissM0>
- 사회투자지원재단. (2021년 9월 1일).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민관협업 모델, 2022년 9월 5일 검색, <https://ksif.kr/tag/%ED%84%B0%EB%AC%B4%EB%8A%AC%EC%A0%9C%EC%9E%91%EC%86%8C/>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외. (2020).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자료집*.
- 성승현. (2021년 9월 1일).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민관협업 모델. *사회투자지원재단*. 2022년 9월 5일 검색, <https://ksif.kr/tag/%ED%84%B0%EB%AC%B4%EB%8A%AC%EC%A0%9C%EC%9E%91%EC%86%8C/>
- 실비아, 조지, & 권범철. (2020).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101, 173-190.
- 안새롬. (2020).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333-370.
- 안진구. (2012). 스웨덴 JAK 협동조합은행 사례와 시사점. *협동조합네트워크*, (57), 74-95.
- 양준호. (2020년 10월 7일). [목요논단]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한다. *인천일보*. 2022년 10월 1일 검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135>

- 양준호. (2020년 10월 16일). [기고] '시민 주도'의 녹색금융을 제안한다 -경기도 녹색금융 논의에 부쳐. *가톨릭프레스*. 2022년 9월 30일 검색,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6767>
- 양준호. (2021년 12월 7일). 지자체 '시금고'를 맡을 지역공공은행 설립하자. *중기 이코노미*. 2022년 11월 28일 검색,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885>
- 유기현. (2021). 도시 커먼즈 (Urban Commons)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연구*, 11(1), 216-247.
- 웹진 공유도시. (2021). 공유, 자치, 현대의 공간, 빈집과 빈땅 이야기. *웹진 공유도시*, 2021년 7월호, <https://commonscity.com/> (최종접속일: 2022.11.29).
- 이경숙. (2006년 11월 15일). 일자리 창출·환경친화기업 육성. *머니투데이*. 2022년 11월 14일 검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6111413420546800&type=1>
- 이동근. (2021). 홍성군 흥동면의 민간주도 지역화폐운동의 의의. *민위방본*, 81, 1-10.
- 이상진. (2021년 5월 28일).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9.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금융, 단체신협으로 시작하자. *이로운넷*. 2022년 10월 3일 검색,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80>
- 이원영. (2020년 11월 14일). 그린뉴딜, '녹색시민은행'으로 풀어가자. *오마이뉴스*. 2022년 9월 30일 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2516
- 이원영·양준호. (2020년 11월 30일). [특집] '녹색시민은행'으로 열어나가는 그린뉴딜. *주간경향*. 2022년 10월 1일 검색,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011201430171&code=114>
- 이원표. (2016년 12월 8일). 신협·소비자협동조합,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모 [몬드라곤②] 라보랄쿱차, 에로스키. *레디앙*. 2022년 10월 3일 검색,
<http://www.redian.org/archive/105908>
- 이인우. (2016).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방법론 구축방안연구*.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 이재환. (2019년 4월 19일). 지역화폐 '잎' 활성화, 농협에서 사용 가능. *홍주일보*. 2022년 9월 7일 검색,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63>
- 이정민·노태석. (2018).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11(1), 29-57.
- 이종익. (2022년 1월 7일). ESG금융의 조건-독일 GLS 은행의 사례를 바탕으로. *EBN 산업경제*. 2022년 11월 1일 검색, <https://m.ebn.co.kr/news/view/1515199>
- 이희욱. (2004년 11월 19일). 착한 일만 하는 은행이 있다고? *한겨레*. 2022년 11월 10일 검색,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4/11/004000000200411191338001.html>
- 임영주. (2005년 10월 12일). 이자는 환경보호에 써주세요. *경향신문*. 2022년 11월 14일 검색, 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0510121741271
- 정양환. (2014년 2월 17일). 3년 넘게 외출도 못한 여공들, 쓰레기통 잔반주워 먹어. *동아일보*. 2022년 9월 10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40217/60925249/1>
- 지음. (2013). 공유, 자치,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 빈집, 빈가게, 빈고 -빈마을 이야기. *도시와 빈곤*, 102, 62-76.
- 피에르-올리비에 마우. (2021).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의 역사, 존재의 열정*. 착한책가게.
- 해빗투게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https://www.ohmycompany.com/reward/7843>
(최종접속일: 2022.12.10)
- 희년함께 홈페이지. <http://landliberty.org/> (최종접속일: 2022.12.10)
- Banka Etica 홈페이지. <https://www.bancaetica.it/about-us/> (최종접속일: 2022.12.10)
- Bollier, D. (2020).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 In *The New Systems Reader* (pp. 348-361). Routledge.
- Bollier, D., & Conaty, P. (2015). Democratic money and capital for the commons. Commons Strategies Group Workshop Report, Berlin, Germany.
- French, S., Leyshon, A., & Wainwright, T. (2011). Financializing space, spacing financializ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6), 798-819.
- GABV 홈페이지. <https://www.gabv.org/members/> (최종접속일: 2022.11.10)

GLS 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warum-gls-bank/wo-wirkt-mein-geld/wohnen/mietshaeuser-syndikat/> (최종접속일: 2022.12.10)

Knox-Hayes, J., & Wójcik, D. (2020).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Routledge.

Lai, K. P. (2016). Financial advisors, financial ecologies and the variegated financialisation of everyday investor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1(1), 27-40.

Langley, P. (2020). The folds of social finance: Making markets, remaking the social.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2(1), 130-147.

Langley, P., & Leyshon, A. (2017). Capitalizing on the crowd: The monetary and financial ecologies of crowdfun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49(5), 1019-1039.

Leyshon, A., Burton, D., Knights, D., Alferoff, C., & Signoretta, P. (2004). Towards an ecology of retail financial services: understanding the persistence of door-to-door credit and insurance provider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6(4), 625-645.

Liu, F. H., & Lai, K. P. (2021). Ecologies of green finance: Green sukuk and development of green Islamic finance in Malay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3(8), 1896-1914.

Meyer, C. (2019). Social finance and the commons paradigm: Exploring how community-based innovations transform finance for the common good. *Management Decision*, 58(4), 786-796.

Mietshäuser Syndikat 홈페이지. <https://www.syndikat.org/finanzierung/> (최종접속일: 2022.11.8)

PROJUSTICE 홈페이지. https://projustice.kr/jak_intro/ (최종접속일: 2022.11.8)

Rankin, K. N. (2013). A critical geography of poverty finance. *Third World Quarterly*, 34(4), 547-568.

Roy, A. (2010). *Poverty capital: Microfinance and the making of development*. Routledge.

Shareable. (2018). *Sharing Cities: Activating the Urban Commons*. Shareable.

Standing, G. (2019). *Plunder of the Commons: A Manifesto for Sharing Public Wealth*. Penguin UK.